今週一言 사람은 누구나 그 살림에 대해서는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벌처럼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부질없이 남의 힘이나 의지하고 그 베푸는 것을 바라서는 안된다。

<佛敎聖典>

東大新聞

발행인 이지관
편집인 송재운
주간 임영정
편집국장 신관호
편집장 정우석
펴낸곳：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267—8577)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41—4132)
인쇄인 이규행

제1024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10 1955.10.13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89년(단기4322년)5월31일 (수요일) 【1】

목멱대동제 지난26일 성료

「학생-전경체육대회」등 화합의場 마련

주체적 참여의식 부족은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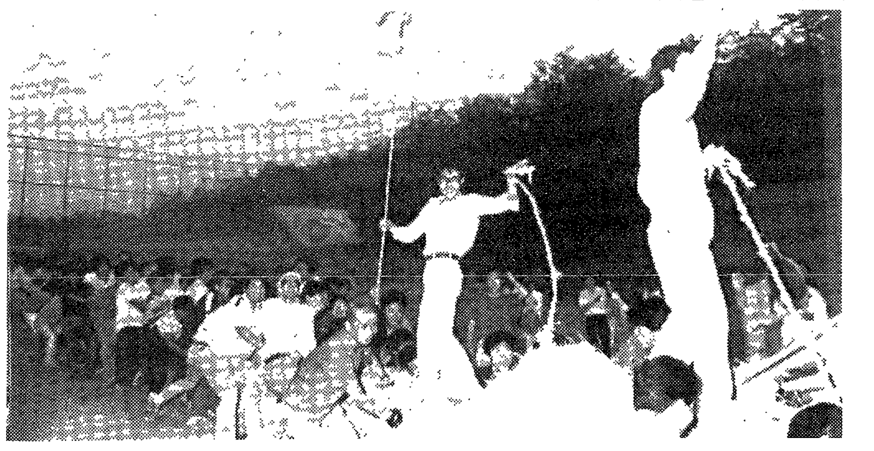
개교83주년기념「목멱대동제」가 지난26일 오후7시 7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대운동장에서 가진 폐막식을 끝으로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관련기사 7면>

「가자！자주의 깃발들고, 오라！통일의 불꽃되어, 노래하자！해방조국의 새날을」이란 기치아래 지난 23일부터 날자별로「학원자주의 날」,「평양축전의 날」,「노학연대의 날」,「민족대단결의날」이란 주제를 각각 설정해 실시된 이번 축제는「학생・전경체육대회」,「노동자—농민학생한마당」등의 다채로운행사가 열려「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는 의의」에 학생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총학생회 기획부장 김봉준 (야간경영4) 군의 사회로 진행된 대동놀이 폐막제에서 부총학생회장 윤팽현 (독문4) 군은 폐회사를 대신해 대동제의 슬로건을 외치고 투쟁결의문낭독을 통해『명동성당에서 전두환구속, 故이철규열사사인규명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총학생회장 김성규 (사학4) 군을 비롯한 본교생7명과 전대협 학생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서는 지난25일 열린「학생・전경 체육대회」등이 학생들의 큰 호응을얻었으며,「교과과정개편을 위한 심포지엄」,「반민주악법 심포지엄」등 각종 학술회의도 활발하게 열렸다。

학생들이 예전의 대동제에 비해 변화된 형식의 운영방법으로 보다 철저한 준비와 기획속에 동참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동제의 참의미를 되찾을수 있도록 공감대형성에 주력한 이번 행사는 독립된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청년학생축전등의 대외사업과 학자투의 교내투쟁에 긴밀히 연관돼 진행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개교83주년기념「목멱대동제」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교내일원에서 열렸다。

"노태우 소환-이철규 사인규명"

金총학생회장등 단식 6일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김성규 (사학 4) 군을 비롯한 본교생 7명은「광주학살주범 전두환구속및 노태우 소환조사」,「이철규군 사인규명」등을 요구하며, 지난25일 전대협소속 학생 5백51명과 함께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철야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본교생 철야단식농성자는 김성규 (사학4), 조시영 (인철3), 조남이 (인철2), 정우식 (철학2), 이원복(통계4), 김영길 (사회2), 신형우 (야간무역2) 군등 7명이다。

한편「노태우정권 타도투쟁」과「제13차평양청년학생축전 참가투쟁」에동악의 1만학생들이 떨쳐일어나기를 촉구하며 동아리연합회장 최동학(인철4), 사회부장 이세용 (무역3) 君등이 지난26일 오후 5시부터 학생회관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보리수

平常心이 道라는데…

고려시대 스님으로 진각(眞覺・AD1178～1234) 선사란 분이 계시다。보조국사의 제자인 이 스님은「心要」,「禪門拈頌」등의 저서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하루는 이 스님이 많은 대중들을 앞에하고 법상 (法床) 에 올랐다。그리고 이렇게 說하는 것이었다。

『검소한데서 사치스런데로 들어가기는 쉬워도 사치한데서 검소한 데로 나오기는 어렵다。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생각에 부처가 나타나고 걸음걸음에 미륵보살이 탄생하며…말마다 글귀마다 대장경의 부처님 말씀을 완전히 펼친다 할지라도 이것은 대수롭지 않은 예사일이니, 거기서 무엇을 나타내려 해서는 안된다。배고프면 밥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며 한가로우면 앉아있고 고단하면 잠을 잔다。불법이니 마음이니 하는 생각 전연 없고, 태평한 풍월에도 상관하지 않는다。이것은 어떤 사람의 경지인고？』

시쳇말로 무엇무엇인체하는<…체병>걸린 사람들을 경책하는 말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도닦는 일이란 뭐 그렇게 유별난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있음을 깨우치는 말이다。배고프면 먹고 고단하면 잔다고 하는 말속에는 佛家에서 회자되는「平常心이 곧 道」라고 하는 멋진 경구가 들어있다。

선가에서는 자아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자아 그 자체가 문제」인 것으로 파악한다。보리달마가 혜가 (慧可) 에게 한 말『너의 마음을 내 앞으로 가져와라』는 것도 실상은 자아파악의 이와같은 맥락에서다。

괴로와하는 자아는 분화된 자아이다。도가 일상의 마음을 떠나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객이 분리된 자아이다。그러므로 평상심이 도라고 할때의 자아란 주객 미분전의 주체를 뜻한다。지난25일 본교 총학에서는 중부서 전경대원들과 친선체육대회를 가졌다。화염병과 최루탄으로 얼룩진 분열된 젊은 마음들이 이날 하루 주・객미분전의 평상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것같아 흐뭇하기만하다。

宋在雲

경주교수회 임총

경주캠퍼스 신・구교원 상견례및 교수회 임시총회가 지난24일 오후5시 교수 1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원효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임시총회는 李正一(생물) 경주교수회 총무의 사회로 崔圭喆 (기초과정) 경주교수회장 인사말, 회비징수방법 토의, 학술부 설치를 위한 학교측에 의사전달 방법및 내용확정, 교원아파트건립 방안 수립등이 토론됐다。

한편, 崔교수회장은 이날 총회후 일신상의 이유로교수회장직을 사퇴할 의사를 밝혔다。

직원노조 협상

임금인상 잠정합의

서울캠퍼스 직원노조 (위원장=宣相圭) 는 지난 24일과 26일 본관 2층 학처장회의실에서 金繁雄 (행정학) 기획실장등 학교대표 5인과 2차례의 노사협의회를갖고 임금인상에 관해 잠정합의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직원임금은 일률적으로 7.5%, 야간근무수당은 25%인상됐다。

한편, 이번 노사협의회는지난 16일 열린 노조임시총회에서 부참사 (주임급) 이하10%임금인상, 야간근무수당50%인상을 요구하며 학교측에 재협상을 상정해 이뤄졌다。

등록금 환불

총19개학과 3학년 대상으로

이과대・공과대・농과대 (농학, 농생, 임학과)・사범대 (수교, 가교, 체교과)・예술대・야간강좌 (전산, 산공과) 등 총19개 학과 89학년도 3학년 1학기등록금이 일정금액씩 환불된다。

단대별 환불금액은 이과대・사범대4만7천5백원, 공과・예술대・야간강좌 10만1천7백원, 농과대가 4만6천원씩 각각 환불하게 된다。

이는 등록금동결 합의이후 3학년생의 등록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학교측과의 계속된 협상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지난24일 1차적으로 대상자 접수마감을 각 교학과에서 실시했다。

한편, 경주캠퍼스 각계열별 3・4학년 대상「89년1학기 등록금인상분」에 대한 환불은 내달7일부터 경리과와 각은행지점에서 실시한다。

인문사회계열은 경리과에서 직접 개인에게 환불하며, 공학・예능계열은 3학년을, 의학계열은 의학1, 의학4년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은행구좌번호가 접수되는 대로 지급된다。

총학, 오늘 당락판가름

경주 후보모두「학자투완수」공약

경주캠퍼스 제6대 총학생회 선거가 지난29일 4차유세 (야간강좌대상) 를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끝내고 지난30일과 오늘 (31일) 양일간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짓게된다。

지난 24, 29일 정오(12시) 녹야원에서의 2, 3차 유세와 29일 오후5시30분 진흥관 통일광장에서의 야간학생 대상 유세에서 기호1번 유재중・장성윤조는『학자투가 최우선 되는 것이다』라고 전제하고「평양축전 참가, 학자투완수투쟁, 복지시설의 소비조합제 전환, 성건동 자치위원회 구성」등을 내세웠다。

기호2번 이종현・한광태조는『선거와 관계없이 학생대중과 계속투쟁 하겠다』며『부총장 1인직선, 기획조정실설치로 경주자주권을 높이고 평양축전준비위를 구성해 통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호3번 이하형・최경식조는『공개운영・전교대표자회의 중심으로 운영하는 혁신총학을 건설할 것이며 구속학생 석방투쟁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한뒤「제2캠퍼스 총연맹구성, 면학풍토조성」등을 내세웠다。

사회과학 학술발표회 마쳐

韓학장「한국사회갈등…」기조발표

제1회 사회과학 학술발표회가「한국사회의 갈등문제와 그 대책」을 주제로 지난29일 오후1시40분 법과대・사회과학대학 공동주최로 동국관 (L301) 에서 열렸다。

李智冠총장, 韓相範법대학장, 兪光震사과대학장등을 비롯한 교수・학생・대학원생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兪光震사과대학장의 개회선언이 있은후 韓相範교수는「한국의 사회갈등 그문제와 대응에의 모색을 위해」라는 기조발표에서『다양한욕구의 분출에 있어 한꺼번에 안되어도 최선을 다하는 슬기를 갖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의과대 최신기자재도입

7억원상당 실습·연구용

과학관에서는 제3차 OECF교육차관사업의 일환으로「경주캠퍼스 의과대학 의학과 실습및 교수연구용 기자재」도입업무를 수행중이다。

이번에 새로 들여오고 있는 기자재는 분광광도계・초원심분리기・원자흡광장치・H—P—L—C등 74종 총1백53점으로 1백만달러 (약6억7천만원) 가 소요된다。

이사업이 진행됨에따라 학생들의 유기생화학, 미생물, 해부학, 병리조직학, 예방의학, 생리학 실험실습및 교수연구에 크게 기여하게되며 금년말 모든 기자재도입이 완료된다。

1학기 학사일정 내달 22일 마감

9일限 수강신청마감

89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이 내달22일 하계방학에 들어감으로써 마감된다。

이에따라 학생들은 오는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해당대학 교학과에 8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을 해야하며 수강신청 확인및 정정은 개강후 하게된다。

학교발전기금 1천여만원 기탁

기획실에서는 학교발전기금 1천2백40만원을 적립해 개교기념사업회가 발족하는대로 기탁할 예정이다。

이기금은 지난 6일열렸던 개교 83주년기념만찬 (동국발전의 밤) 시 참가비로 1인당 5만원씩을 걷어 행사운영비로 쓰고 남은 금액으로「개교83주년기념및 학교발전기금조성」이라는 당초 행사취지에 맞게 발전기금으로적립한 것이다。

알림 본지는 이번1024호로 1학기종강호를발행합니다。

社告

제27회 學術賞 논문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매년 알찬수확을 거둬온 本社 學術賞이 傳統과 權威의 연륜을 쌓으며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읍니다。本학술상에 동국인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모집 분야

人文科學賞 ・ 社會科學賞 ・ 自然科學賞

응모요령

원고매수=人文・社會・自然科學3개분야 모두2백자 원고지60매내외로 지도교수의 추천및 소속학과 학술논문이어야함
응모자격=서울및 경주캠퍼스 재학생에 限함
심사위원=本社에서 위촉하며 당선작발표와 함께 공고
시 상=상장및상금 (분야별당선작20만원・가작15만원)
제출기간=10월2일부터 6일까지 본사에서 접수
당선발표=10월18일字 本紙紙上

東大新聞社

1989학년도 후기 각 대학원 학생모집

대학원(주간) 전화 (직)275-3256 (교)267-8131~9 交2254
1、모집과정 및 학과・석사과정・박사과정
・인문계…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사회계…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조경학과
응용생물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체육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단, ※표는 박사과정 제외)
2、시험과목
▲석사과정=①영어 ②전공 ③구술고사 (학과별실시) ▲박사과정=①영어 ②학과공통과목 ③전공과목 ④제2외국어 (인도철・국어국문・철・국민윤리・한의학과에 한함)
3、시험일정 ①원서교부및접수…1989년5월29일 (월) ~5월31일 (수) 17시까지 ②전형일시및장소…1989년6월9일 (금) 오전10시 동국관

행정대학원(야간) 전화 (직)267-8574 (교)267-8131~9 交2263
1、모집과정 및 전공…석사과정、연구과정、행정관리과정
①행정학과…일반행정・공공정책・지역개발・관광행정・언론홍보 ②안보행정학과…외교국방・방위산업・군사전략・북한학 ③안전관리학과…안전관리 ④공안행정학과…경찰행정・교도행정・소방행정・사법행정 ⑤복지행정학과…사회복지
2、원서교부 및 접수…1989년6월7일 (수) ~1989년6월14일 (수) 오후5시
3、전형일시 및 장소…1989년6월17일 (토) 오후2시 본대학원
4、전형방법…①석사과정=전공 (행정학)、서류전형、면접 ②연구・행정관리과정=서류전형및 면접

경영대학원(야간) 전화 (직)267-8140 (교)267-8131~9 交2273
1、모집과정 및 전공…석사과정、연구과정、관리자과정
①경영학과…인사관리・마아케팅・생산관리・재무관리 ②회계학과…관리회계・재무회계・세무회계 ③무역학과…무역이론・무역관리・국제경영 ④경제학과…관리경제학・국제경제학 ⑤전자계산학과…시스템시뮤레이션・전자정보처리 ⑥노사관리학과…노동법・노동경제・노사관리 ⑦부동산학과…부동산관리・부동산감정평가・부동산중개
2、원서교부 및 접수…1989년6월1일 (목) ~6월8일 (목) 오후5시
3、전형일시 및 장소…1989년6월10일 (토) 오후2시 본대학원
4、전형방법…①석사과정=영어、논문、면접 (단 직장에서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자는 우선적으로 참작함) ②연구・관리자과정=서류전형및 면접

교육대학원(야간) 전화 (직)279-8052 (교)267-8131~9 交2283
1、모집과정 및 전공…석사과정、연구과정
①교육학과…교육행정・교육경영 ②교과교육학과…국어・지리・역사・수학・윤리・철학・미술・한문・체육・영어・물리・화학・생물・가정・전자계산・종교
2、원서교부 및 접수…1989년6월1일 (목) ~6월8일 (목) 오후5시
3、전형일시 및 장소…1989년6월17일 (토) 오후2시 본대학원
4、전형방법…①석사과정=전공、교직교양및 면접 (단 미술교육 전공응시자는 실기포함) ②연구과정=전형 (필기부과) 및 면접

정보산업대학원(야간) 전화 (직)277-6511 (교)267-8131~9 交3292
1、모집과정 및 전공…석사과정、연구과정、관리자과정
①정보전산학과…정보전산 ②신문방송학과=신문방송・출판잡지 ③산업개발학과…산업개발・정보통신
2、원서교부 및 접수…1989년6월7일 (수) ~6월15일 (목) 오후5시
3、전형일시 및 장소…1989년6월17일 (토) 오후2시 본대학원
4、전형방법…①석사과정=필기시험 (영어)、서류전형、면접 ②연구・관리자과정=서류전형、면접

지역개발대학원(야간) 전화 (직)경주41-4131 (교)경주2-0131~6
1、모집과정 및 전공…석사과정、연구과정、관리자과정
①개발행정학과=개발행정・지방자치・지역경제개발
2、원서교부 및 접수…1989년6월15일 (목) ~6월22일 (목) 오후5시까지
3、전형일시 및 장소…1989년6월24일 (토) 오후3시 본대학원 (경주캠퍼스 진흥관1층)
4、전형방법…①석사과정=논문、서류전형및면접 ②연구・관리자과정=서류전형및 면접
◎기타 자세한것은 해당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社 說

1학기 학자투, 실천력 부재 여실

다가오는 총장선거는 모든주체 참여로

살아 움직이며 꿈틀거리는 역사적 장정을 시작한지 1년이 넘었다. 이 기간은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지켜내려는 힘찬 몸부림이었으며 민족사학의 거대한 뿌리를 찾게된 계기였다. 가히 「개교 82년이래 1대사건」으로 불리울만한 업적을 지난 88년도에 이뤄냈다.

한순간의 투쟁에 의해 학원자주화의 깃발을 높이 치켜든 것이 아닌 지속적 투쟁의 반복을 통해 승화시켜냈던 것이다.

실천활동의 한계와 오류는 수없이 겪었으며 앞으로도 노정된 것이지만 올1학기를 거의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학원자주화투쟁의 평가는 과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단결의 원칙을 대중적으로 위치지웠음에도 불구하고 창출물을 일구어내지못한 사업이었다.

실무단위 논의를 통해 최소한의 학원자주화투쟁에 대한 논의의 확산을 비롯, 이를 대중적으로 총화시켜내는데 부족한 과오가 지적된다.

또 어용·무능으로 지탄의대상이 된 교수들의 협잡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양심적 교수들의 運身 또한 주위에서는 따가운 오해를 가득 담은 시선을 던지고 있어 학자투 암흑기를 겪는 느낌이 가득한것도 유감스러운 사실이다.

지난1학기에 대한 올바른평가를 겸허하게 반성하며 앞으로의 사업을 준비해야할 시점이다. 최우선적으로 닥친 과제는 민주적 총장선출 제도마련과 교과위의 활발한 실천활동이 절실한 당면사업이다.

교수·학생·학교당국 3주체의 대표인 총장이 이전까지 이사진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비운의 역사를 청산하고, 민주적 제도를 확정지어야 하는 것이다.

「총장선출제도」에 있어 여러가지 案이 제시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학원의 각 주체가 주인된 의식을 발현 할 수 있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인물역시 굳이 조선대 사례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침체된 학원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자주성을 강력히 수호할 각 단위와 중앙의 「총장추대위」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는 교과위 사업으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맘껏 누릴 수 있고 민족자주의식을 고양시키는, 어용·무능교수의 낡은 노트가 사라질 수 있게 민족사학의 거보는 내딛어지는 것이다.

동국의 과거·현재·미래를 개척하는데 교수·학생·직원이 더 이상 남일수 없다.

민족문화 창조의 場이 돼야

대동제, 기획·운영상의 미숙 드러나

대학문화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축제도 어느덧 마감되고 새로운 한주를 맞이했다.

대학에서 축제란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다른 형태로써의 발현이다.

흔히들 대학의 축제를 「대동제」나 「한마당」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든이가 축제를 같이 만들어 나아가기 때문이다. 대학은 기성의 모순을 타파하고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한 노력의 장이어야 한다. 기성의 문화가 「소외의문화」, 「향락의문화」임에 반해 대학의 문화는 「참여의문화」, 「대동의문화」로써 역할해야 한다.

그럼 지난주 본교에서 있었던 축제가 이러한 의미에 충실하였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철저한 주점관리나 사행성 도박등을 단속함으로써 학원내 축제로서의 건전함을 지키려는노력은 돋보였으나 아직도 곳곳에서 폭리를 취하고자하는 상혼과 학우대중의 열기를 담아낼 내실있는 기획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많은 학우들을 축제의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렸다.

또한 「학원자주의 날」이니「평양축전의 날」「노학연대의 날」「민족대단결의 날」이라고 이름지어진 축제의 하루하루가그 이름의 내용조차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라든가, 많은 행사들이 자족적인 부분으로치우침으로써 내용부실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여기에는 물론 홍보부족과 준비부족이라는 문제가 내재돼 있음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행사는 학생들의 자주적 참여로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받기도했다. 특히 「학생·전경 체육대회」는 기획자체의 참신함을 떠나 학생들의 자주적 참여로 전체 행사의 분위기가 이끌어져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비로소 대동제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

「학생·전경하나되어 노태우정권 타도하자」는 구호는 비록 한 목소리로 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같이 펼쳤던 뜨거운 응원전과 놀이는 같은 시대를 사는 젊은이로서의 동지감을회복시키는데 조그만 한 몫을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몇몇 소수의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학우들을 단순한 구경꾼으로 전락시키고 있었다.

이번 축제는 이전에 나타났던 소비향락적 모습이나 목적의식성만을 강조하는 소아적 병폐는 극복되고 있다고 하나 이를 대신할 참신한 기획의 모색은 아직 절실하다 하겠다.

또한 운영의 미숙이나 학술행사의 빈곤 극복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 계속돼야 할 것이다.

중·소 정상회담, 미국의 동북아정책 변화 요구

북한의 對미·일 접근 긍정적 유도

주한미군철수거론, 평화공존체제 제시

時事論壇

김 성 주

<성균관대교수·국제정치이론>

지난 5월 16일 소련 공산당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중국 최고실권자 등소평이 북경에서 30년만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1959년 니키다 후르시초프와 모택동간의 양국 정상회담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정세가 군사적으로는 유화국면에, 정치·경제적으로는 실리외교의 국면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중소 정상회담은「평화공존」의 논리속에서 국제질서의 재구성이라는 상징적 측면과 개혁·개방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간의 필요성이라는 실질적 측면등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소정상회담은 미·중·소 관계 뿐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소·일·남북한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949년 중국공산당이 중국대륙을 장악한 이래, 중소관계는 군사·정치·경제·이념적으로 긴밀한 유착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자 중소간에 정치적·이념적인 갈등이 나타났으며 양국의 관계는 점차 균열의 조짐이 뚜렷해졌다. 국경분쟁에 따른 양국의 군사력 증강과 후르시초프의 대서방 유화정책 등으로 중소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1969년 닉슨 미대통령의 「괌독트린」과 1972년 미중간 상해공동성명은 양국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중국은 대소견제와 낙후된 경제력 향상을 위해 미국을 필요로 했으며, 미국 역시 블라디보스톡에서 캄란만으로 이어지는 서태평양에서의 소련의 팽창력을 억제하기위해 중국과의 제휴가 불가피했다.

80년대에 들어서 소련의 아프카니스탄침공, 이에 따른 미국의 대소경제보복과 올림픽 불참 등 일련의 사태는 국제정세를 신냉전기류로 몰아 넣었으며 중국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 바있다.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중소관계개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아프카니스탄문제와 국경에서의 군축문제등이 해결상태에 와있으며, 캄푸치아문제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고르바초프와 등소평간의 정상회담은 이러한 것들을 공식화해주고 있다. 양국의 정상회담으로 60년대이래 이념논쟁과 국경분쟁으로 단절된 중소양국의 국교정상화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리라 예상된다.

중소관계정상화는 미·중·소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칠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미·소사이에서 주축국가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소련 어느 한쪽도 국제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 「중국카드」를 무시할수 없다. 중소정상회담이전에 부시 미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것도 미국의 입장을 중국에 설명하고 미·중간의 관계를 재확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행동반경은 보다 커질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었으며, 중국은 효과적으로 실리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할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소련과 화해를 함으로써 국방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추진중인 현대화계획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될 것이며 소련 역시 중국과의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초점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국제질서에 맞추어볼때, 중소관계정상화는 준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는 미·중·일 삼각공조체제에 변화를 줄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중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중·소등 대륙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군비증강등 재무장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었다.

만약, 1950년대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겠지만, 중소가 손을 잡고 협조체제를 구축할 경우 일본은 대륙세력에 대한 정책을수정해야만 한다. 미·중·일 동맹관계속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 진출에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던 소련은 동아시아진출의 발판과 「블라디보스톡—대한해협—캄란만」으로 이어지는 전략해로를 강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서태평양에서의 역할분담을 위해 일본·한국·필리핀 등에 방위비분담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주적·능동적 대외정책을 요구하는 각 국가의 국내환경때문에 상당한 저항도 예상된다.

중소 관계정상화는 남북한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의 소련의 개혁·개방정책, 중국의 4대현대화를 위한 경제개방, 그리고 동구권국가들의 개방화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 북한은 무분별한 군비경쟁을 위한 과다한 국방예산의 책정보다는,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력·무기의 대폭감축을통해 군수산업의 상당 부분을 민간산업으로 전환해야할 입장이다.

현재 북한은 소련·일본·캐나다·유고슬라비아 등과 합작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호텔·하이테크·의류·공산품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의미는 과거의 군사중심 공장조성에서 민간시설과 국민생활향상을 위한 산업시설 건설로의 정책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소비생필품 분야와 농업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북한이 주장해온 경제적 자립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중소관계의 정상화진전에 따라 북한·미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북한은 중국과 소련사이에서 효과적인 「등거리외교」를 취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실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중소의 개혁·개방화 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고립외교에서 벗어나 대미·일접근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도 침체된 경제력향상을 위해 서방국가, 특히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필요하다.

한국 역시 효과적인 북방정책의 추진을 위해 소련과 중국의 이해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요구된다.

사회주의권·북한의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방정책은 상징적 의미외에는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논의의 효과적 접근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미·북한 그리고 한국·사회주의권의 이해가 따라야 한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남·북한간 군축문제, 주한미군철수문제등 한반도현안문제들이 논의되어질 때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가 제시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평화공존, 군축문제, 주한미군철수 등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주체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국정부의 「자기적응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중소의 정상회담과 관계정상화는 상징적·실리적인 측면에서 국제정세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정세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변적인 요인으로 작용할것이다. 경제적 기능적인 필요성 때문에 양국의 접근이 불가피하지만, 미·중·소·일이 교차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환경변화속에서 남북한은 주체적·능동적인 자기적응을 추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학우간의 "위화감" 조성…

—증가하고 있는 학생들의 자가용등·하교를 보며

좁은 학교공간 활용위해서도 자제해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자동차 수가 급증하면서 교통체증, 주차장문제, 위화감 조성, 교통사고의 증가, 더욱이 자동차가 하나의 과시용품으로 이용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視角

필자는 인간생활의 가장 편리한 물건이긴 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서운 물건이기도 한 자가용과 우리학우들의 생활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자가용이 우리생활 가운데 자리잡아 나가면서 부터 우리동악에서도 자가용을 타고 등·하교하는 학우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학우들의 자가용 등교는 타학우들에게 몇가지 해악을 끼치고있다.

먼저 대학생은 그 신분상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으며 또한 자가용 사용이 절실히 필요하지도 않은데 굳이 자가용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학우들이 신학기때마다 등록걱정을 해야하는 쉽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학우들이 자가용으로 등·하교하는 학우들을 볼때 과연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 자가용을 타고다니는 학우들은 한번 쯤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더구나 우리학교의 공간이 넓지 않다는 것은 모든 학우가공감하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공간이 좁아 쉴만한장소도마땅치 않은데 자가용이 그나마 좁은 공간까지 차지한다면 우리의 휴식공간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얼마전 연세대학교에서는 학교내에서 한 학우가 자가용 등하교를 하는 학우의 차에 치여 사망한적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 사망율로 볼때 교내사고율은 그리 높지않은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변의 학우가 학교내, 바로 우리주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면…. 상상조차하기 싫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자가용 등·하교는 한번쯤 더 생각해 봄직한 일이 아닌가 한다.

또하나 후문앞을 지나다 보면 숨막히는 자동차들의 행렬이 눈에 띈다. 작년 학·자·투를 통해 후문앞 일방통행을 얻어냈다. 일방통행의 소식을듣고 기뻐하지 않은 학우가 없을 줄 아는 데 말이 일방통행이지 지금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일방통행을 알리는 게시판이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 놓여있어미처 볼 수 없고 후문 앞에서 교통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후문 앞에서 교통경찰을 본 학우는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경찰의 순찰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일방통행은 지켜질 수 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우들에게 당부할 것은 지속적으로 일방통행임을 알려줘차의 방향을 돌릴 수 있게 하거나 이를 잘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학생복지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성의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자동차가 사용자들의 몰지각으로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것이 안타깝다.

윤 미 영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東國漫評 임치섭

◇다음엔 뭘 잡을까?

예비군기본교육 소집

예비군 설치법 제6조 및 동시행령 13조에 의거 예비군 기본교육을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1. 교육대상 : 전예비군 (학생 및 교직원)
2.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가. 89년 1월 1일이후 전역한 예비군 (예비역 및 실역필 보충역)
   - 나. 89년 1월 1일이후 동원훈련필한자
   - 다. 행정관리자원 (사병으로서 만34세, 35세 및 미필보충역)
3. 대학별 교육소집 일정

교육일자	시간	교육학급(대학)	집합장소	과목	복장 및 휴대품
6. 19 (월)	08 : 00—17 : 00	이부대학(경제, 무역, 경영)	중강당	정신교육 (4H) 행동체력검정 (4H)	예비군복휴대, 학생증, 중식, 필기구, 병역수첩 필히휴대 (교육받은 사항날인)
6. 20 (화)	08 : 00—17 : 00	이부대학(산공, 전산, 회계, 영문), 법과대학			
6. 21 (수)	08 : 00—17 : 00	5개대학원 (대학원 소속장교포함)			
6. 22 (목)	08 : 00—17 : 00	공과대학			
6. 23 (금)	08 : 00—17 : 00	불교대학, 예술대학, 경상대학			
6. 26 (월)	08 : 00—17 : 00	사과대학, 문과대학			
6. 27 (화)	08 : 00—17 : 00	농과대학, 사범대학, 이과대학			
6. 28 (수)	08 : 00—17 : 00	교직원	동국관 L 101		

4. 유념사항
   - 가. 각개인은 위의 자기소속 대학교육일자 및 집합시간 (교육개시10분전) 을 필히 준수하여 참석하여야 합니다
   - 나. 지연도착 및 교육중 무단이탈시는 당일 전체교육을 불참으로 처리합니다

1989년 5월31일

서울캠퍼스예비군연대장

예비군 교육 훈련 소집

예비군설치법 제6조 및 동시행령 제13조에 의거 1989년도 예비군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

1. 교육대상 : 본 연대에 소속된 전예비군학생 및 교직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 가. 일자 : 6월8일 (목) ~ 6월14일 (수) 5일간
   - 나. 시간 : 08시~17시 (1일8시간)
   - 다. 장소 : 문무관 (체육관 및 동천사격장)
   - 라. 교육과목 : 정신교육 및 사격
   - *교육세부일정 : 교내공고문 참조
3. 유의사항
   - 가. 사복착용, 예비군복·학생증·병역수첩·중식지참
   - 나. 지연도착자는 불참으로 간주함
   - 다, 개별영장 발부하지 않음
   - 라. 불참자는 2배의 보충교육을 인접군부대에 위탁실시
   - 마. 출석표는 교육장소에서 배부함

1989년 5월25일

경주캠퍼스예비군연대장

경주캠퍼스설립 10주년기념

금장장학 기금 기탁자 <3차분>

▲金炯秀 (부총장) =30만원
▲金喜午 (학생처장) =20만원
▲李 萬 (불교과교수) =10만원
▲申鍾汶 (수학과교수) = 5만원
▲李根鎬 (한방병원관리과장) =10만원
▲崔哲煥 (도서관사서주임) = 5만원
▲朴斗寬 (상경대교학과) = 3만원
▲申武浩 (도서관열람과) = 3만원
▲梁眞榮 (도서관열람과) = 1만원
▲權俊鎬 (도서관열람과) = 3만원

합계 : 90만원

총적립기금액 : 8,048,490원

경주캠퍼스 학생처 장학과

전화 (0561) 2—0131~6 交228·229

전국 대학생 논문현상공모

전환기에 서 있는 한국농업의 미래좌표와 환경 변화에 따른 농협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전국 대학생 논문을 현상공모 합니다.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된 농협이 농업과 농촌 발전에 관한 대학생의 참신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본 공모에 역량있는 대학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 래—

1. 응모자격 : 전국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2. 논제 : (4제중 택일)
   가. 전환기에 선 한국농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나. 민주화, 자율화, 지방화 시대에 따른 농협의 발전방향
   다. 금융 자율화에 따른 농업금융의 과제와 전망
   라. 2000년대의 농촌개발 방향과 농협의 역할
3. 응모마감 : 89년 9월 9일 (당일자 소인분도 유효)
4. 당선작발표 : 89년10월5일 목요일 (당선자 개별통지 및 본회 현관에 게시
5. 상금 및 시상
   가) 상금 ○최우수작 (1편) : 300만원과 상패
   ○우수작 (1편) : 100만원과 상패
   ○가작 (8편) : 각 30만원과 상패
   나) 시상 : 당선자에 대한 시상일시및 장소는 추후개별통지함.
6. 응모요령
   ○응모매수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8매 정도의 요약분 첨부요)
   ○제 출 처 : 본회 홍보실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75번지, 우편번호 : 100-707)
7. 기 타
   ○논문 제출시 연락처를 명기 (재학증명서 1통 첨부요)
   ○응모 논문은 일체 반환치 않음.
   ○문의 사항은 농협중앙회 홍보실로 연락바람.
   (전화 : 735-7481 (교)7742)

농민의 꿈을 소중히 키우는
농협중앙회

정보화사회의기수 (주)민컴의동반자
서울컴퓨터학원
21年의 信賴와權威

프로그래밍정규과정 (개강 · 매월 첫째주 월요일)
• EDPS, FORTRAN, COBOL Ⅰ·Ⅱ
• ASSEMBLER, OS, OJT (7개월)
• 과목별 수강가능 (수료생 취업 추천)

16BIT PC과정 (개강 · 매월 첫째주 월요일)
• OA-Ⅰ : MS-DOS, BASIC, WP
• OA-Ⅱ : dBASEⅢ+, LOTUS
• 실무BASIC

주말특강과정 (개강 . 매월 첫째주토요일)
• PASCAL, C, SPSS, MS-DOS, dBASEⅢ
• 매주토요일 (14 : 00~18 : 00)

대학생 하계 방학 특강
• 개강 : 7월 3일 (17 : 00~19 : 00)
• 과목 : C, PASCAL (각과정2주완성)

정보처리기사1급특강 (7월 30일 시행)
• 개강 : 6월 12일 (6주 : 18 : 30~21 : 30)
• 과목 : 수치해석, 전자계산기구조, 자료구조 프로그래밍언어론, 시스템프로그램, 응용통계 (기출 10회분 상세분석)
• 과년도 문제 철저분석 강의
• 예상적중 문제 풀이 (본원소유 특수예상 문제 해설)
"전공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음"

735-0211-5 원장 민 경현

실천종교로서의 불교인식을 위하여 (마지막회)

사상의 운동화-운동의 사상화 정착돼야

—한국불교의 현재를 진단한다

◇글싣는 차례
1. 우리에게 불교란 무엇인가
2. 현대불교의 반성과 문제점
3. 80년대 이후의 불교혁신운동
4. 한국불교의 과제와 전망(좌담)

참석자

최 창 술 〈불교대교수·선사상〉
한 상 범 〈법과대교수·헌법〉
여 익 구 〈동문·전민련민주쟁취위원장〉
석 지 명 〈한국 불교사회 교육원 원장〉
사회 : 이 영 근 〈대학원불교학과 석사과정〉
일시 : 5월23일 오후4시
장소 : 본사 주간실

좌 담

"민중불교론의 사회참여주장은 민족 종교로서의 역할위한 노력으로 긍정적…"
한 상 범—

"현실에서 구현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불교이념이 부각되고 연구되어야 합니다"
—석 지 명

"사회의 본질적·구조적 모순을 비판하고 민중과 함께 고민하는 불교가 되어야"
여 익 구—

"지금의 종단은 각 지역별, 주체별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최 창 술—

사회=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좌담은 불탄2533년을 맞는 우리나라 불교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교83주년 기념으로 마련됐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설법하신 이래로 불교는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70년대의 유신체제와 5공화국을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예가 그간의 불교계를 비판하고 나온 실천종교로서의 불교, 즉 민중불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리에서는 한국불교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전술한 민중불교론에서 강조하는 불교의 사회참여와 현 종단활동의 문제점, 그리고 현시기에 있어 불교이념등의 순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교의 사회참여문제에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한상범**=먼저 한국불교의 개괄적인 전개과정을 언급하고 사회참여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국불교는 왕조시대, 일제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시민종교로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회변동속에서 시민계급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에따른 시민문화가 싹틀수 없었음을 반증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반적인 불교의 침체속에 정권종속적인 성격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불교론이 대두가 됐고 이러한 민중불교론에서 주장하는 사회참여는 나름대로의 자성과 비판에서 긍정적으로 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질서에 안주하며 교리해석에만 매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교가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맺고 상호참여한다고 볼때 마땅히 지양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당면과제와 흐름속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석지명**=유신체제 이전만 해도 불교가 그다지 침체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침체했다고 봅니다.

이는 문익환목사 방북에 대처하는 기독교계의 움직임과 불교계의 움직임을 보면 알수있는데 불교계는 몇몇 스님들만 개별적으로 입장을 나타냈을뿐 조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것만 보아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외적 고립상태를 깨뜨리고 불교도, 산중수도와 관념적인 기원법회와 같은 소극적대응이 아닌 구체적 당면과제인 민주화·경제분배·통일문제등에대해 길을 제시할수 있는 참여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여익구**=저는 불교의 사회참여문제에 대해 본질적 참여와 현실적 참여로 나누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본질적 참여란 불교사회학적으로 현실의 정치·경제·문화체제등에 근본적인 비판을 하고 이에 따라 참여하는 것이고 현상적 참여란 불교사회복지학적 측면의 유아원건립, 탁아소 운영, 자선사업등이라고 이야기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적 참여는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에 의문을 던지지 않고 다분히 체제순응적인 면만을 보이는, 정권종속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즉 불교계는 사회의 본질적,구조적 모순을 비판해내고 그에따른 대안을 민중들과 함께 고민하는 본질적 참여의 풍토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최창술**=저는 불교의 사회적 참여를 불교의 기본적인 성격과 관련해 물질적 참여와 정신적 참여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불교는 사실 안심입명적인 성격때문에 일반인들로 부터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라는 말을 많이 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돌려서 생각하면 중생을 구제하고 나아가 사회를 구제해야 하는 승가들의 자기수양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승가들이 사회에 정신적 횃불로서 참여, 중생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하면 자선사업등의 물질적 참여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여에 자어서 비조직적이고 수동적인 참여가 아닌 구체적으로 중생들과 함께 할수있는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불교도 현실에 기반하고 다시 현실에 도움을 주는 종교인 만큼 사회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참여를 위해선 기존의 종단내부분규와 같은 비민주적인 요소를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불교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존종단조직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석지명**=한국불교의 종단조직은 정권의 영향속에 부처님의 승가정신, 민주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비민주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권의 압력등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종단내부에서 문제를 찾을수 있을 것입니다.

승가들의 자기수양, 정진등의 부족과 신도들에 대한 교리학습등의 파행적운영이 결국 주체적인 조직운영과 민주적인 종단조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종단조직이 불국정토, 불교공동체의 주체로 유기적인 활동을 벌여 나가기 위해서는 승려, 불교신도등이 참가해 승가정신을 사회에서 구현, 불교공동체를 만들수 있는 민주적인 종단조직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창술**=사실 정치권과 연관시켜서 종단을 생각해보면 사회·정치·문화부문을 종단이 이념적으로 커버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단이 정치권을 따라가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조직이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되어 있어도 각 주체별 신뢰성을 갖지 못하면 그 조직이 무의미한 것처럼 지금의 종단은 각 지역별, 주체별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종단이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고립분산적으로 운영돼고 있다는 말과도 상통하겠지요.

▲**여익구**=불과종단이 얘기한 전두환전대통령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에서 보듯 불교가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이용당하고 있는지 또는 정권과 결탁해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정권과 결탁해 정권을 비호하며 사회현실을 경시하는 불교는 순수불교이고, 잘못된 현실을 일깨우고자 저항하는 불교는 정치불교라는 논리로 불교를 퇴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신도와 승려들이 이렇게주체로서의 노력과 제도개혁이라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채 기존의 구태의연한 모습만을 보인다면 불교는 영원히 정권에 종속되는 지배철학, 지배이데올로기로써 침체하게되어 불교공동체의 미래는 암담해 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범**=종단조직을 개혁한다는 것은 이념과 물적토대인 재무구조를 개혁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무엇보다도 불교신도와 승려들의 자각된 인식과정속에서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회**=결국 종단조직의 문제를 얘기하다보니까 현대의 불교이념의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세기를 바라보고 통일된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실천종교로서의 불교이념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익구=불교에서의 안심입명이 마음을 바로 하고 몸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할때 성철스님이 말씀하신『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출세간의『산은 산이고…』에서 출출세간의『산은 산이 아니고…』로 세간으로 와서는『산은 산이고…』라는 변화에서 우리는 불교이념이 고정된 것이 아닌 꾸준한 정진과 실천속에서 확립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사회의 본질적 고뇌인 분단의 아픔을 체화시키고 종교적체험으로 정립시켜내는 것이야말로 불교교리의 진정한 정언명령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석지명**=불교에서 이상세계라 할때 내세극락정토, 신라시대 때 나타나는 차방정토, 그리고 禪에 있어 마음의 극락세계등이 있겠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안심입명 즉 현실적인 현세의 극락정토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사회에서, 즉 차방에서 정토를 구현해 낼수있는 구체적인 불교 이념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범**=한국사회를 보는 인식의 심화로써 불교인들의 이념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단자체의 정비문제와 더불어 제기되는 분단조국의 극복을 모색할수있는 이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인간존중, 생명존중의 사상을 충분히 연구해 남과북이서로 민주화되어 갈등을 극복하고 민족종교로서의 이념을찾아나가야 할때라고봅니다.

▲**최창술**=분단시대의 갈등을극복하고 민족종교로서의 이념을 되찾아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우리나라가 안고있는 가장큰 당면과제인 분단이라는 벽앞에서 불교가 가질 수있는 이념적 지향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때 그것은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자비의 정신, 즉 반목하고 질시하는 대립상태를 해소할 수있는 그러한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자비정신이 체제순응적이고 정권수호적인 측면에서 이용당하는 관념적인 자비정신이어서는 안돼겠지요.

▲**사회**=지금까지 현 한국사회의 불교의 활동, 사회참여, 종단의 조직적인 문제, 이념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얘기 했는데요.

그럼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총괄적으로 한국불교의 과제와 앞으로의 전망에 관해 논의해 보기로 하죠.

▲**한상범**=스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한국불교에서의 중요한 문제는 종단조직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듯 자체적인 반성, 개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종단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사회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고 보고 그에 따르는 내적·외적 반성과 민주적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해석, 수렴하는 대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불교계의 개혁을 이룰수 있는 묘수는 없다고 보고 종단내부적인 개혁을 직임과 스님들의 소그룹활동을통해 종단내외적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 수렴해 나갈때만이 한국불교는 사회속에서 대중들과 호흡하는 민족종교로 자리잡을 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창술**=저는 현 종단이 토인비가 얘기했듯이 도전과 응전이라는 역사순환법칙에서 도전의 시기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전이라는 목표는 불교가 지향하는 일체중생구제라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고, 교리입장에서 보면 성주개봉한다는 과정중에서도 주한다고 하는 단계, 즉 불을 머리에 이고 있는 상황의 급박한 입장으로 교단과 불교도 개개인의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모여졌을때라야 낙후된 교단과 불교도개개인의 발전을 이룰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지명**=우선은 불교인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이싱에 있어 중생구제와 지혜를 구한다는 명제가 결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중생구제자체가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중생구제의 내용이 사회참여속에서 시대적 과제속에 확인되어야 한다고봅니다.

그리고, 불교의 이념과 지혜가 관념적으로 종단에 의해 인용되는 것이 아닌 실천속에서 검증을 받고 그것이 다시 종단조직에 의해 사회적으로 실현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불교종단의 모습에 실망과 좌절을 느꼈던 불교인들도 이제는 내가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 사회참여과정속에 이러한 노력이 종단중심에까지 영향을 줄수있도록 대중적으로 열심히 활동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익구**=모든 것을 현실의 구체적 바탕위에서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사상이 재해석과 이념의 정립또한 현실속에서 이루어 지고 이렇게 정립된 이념을 가지고 사회참여를 통해 중생을 구제하는 실천과정에서 검증받는 형식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분단된 민족의 현실에 계신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실것인가 라고 본다면 정토, 선, 연기설등에 대해 앞에서 얘기한 사상적, 조직적 실천을 통한 재해석이 내려지고, 그속에서 불교인들이 진지한 고뇌속에서 구원의 사상으로서 불교를 정립시킬때 그럴때라야만 불교는 민족종교로써 현실개혁의 중요한 사상적 무기로써 발전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록·정리=유권준記者>

투고를 기다립니다

본사 학술부에서는 교수및 학생(대학원생포함) 여러분의 논문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동국인이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인식과 학구적 노력을 담은 연구 결실이 모여 우리 동국의 학풍 혁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는 전공분야는 물론 관심있는 모든 분야로 2백자 원고지 33매 분량이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학 술 부>

-OPC그룹 직영 국내 최대시설 교육기관-
컴퓨터
전산요원 수강생 모집
⊙개강 : 6/5(월), 7/3(월), 8/1(화)
현재 접수중(공휴일도 접수함)

과 정		기간	교 육 내 용		
프로그램 전문과정 (실무포함)		8개월	전산개론	FORTRAN-77	ASSEMBLY
			STRUCTURED COBOL-Ⅰ		COBOL-Ⅱ
			C언어 UNIX	실무 BASIC	실무 COBOL
			과목별 전임강사 강의 실습 한글사용법 책임지도		
여성전문직 과정		4개월	전산개론	키펀치 초급 중급 고급	
			워드프로세서	LOTUS 1 2 3	DBASE Ⅲ +
			취업과 자격시험대비를 위한 체계적인 개인지도		
16 Bit PC 전문과정		2개월	PC 개론	MS DOS	GW-BASIC
			워드프로세서	LOTUS 1 2 3	DBASE Ⅲ +
응용 PACKAGE		1개월	MS DOS	한글 LOTUS 1 2 3	
			워드프로세서	한글 DBASE Ⅲ PLUS	
특별과정	정보처리기사과정	1개월	본원 저술 필기 실기 기출 및 예상문제세미나식 중점해설강의(1,000page 교재 92% 합격율)		
	C언어	1개월	UNIX OS, 제어구조 POINTER 함수 등		
	PASCAL	1개월	TURBO-PASCAL 프로그래밍 기법 중점강의		
	위탁교육	3개월	시간 교육내용 별도 협의 가능		

※ 모든 과정중 1과목(1개월)이라도 선택 수강할 수 있음
⊙교육방법(교육상담 적극환영)
○초심자방향제시에서 부터 전산전문가로 양성
(성실하게 가르치고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국내 교육기관중 최대 컴퓨터 실습시스템운용
초대형MV-10000슈퍼컴(터미날128대)과 OPC-286 XT/AT(16BIT:120대)로 FULL DAY 개인 자유실습
⊙수료후 진로 : OPC 계열사 및 750개MV 컴퓨터 및 OP-COM 보급사 진출, 일반회사 및 전산공무원 추천, 각군 전산병 추천, 정보처리기사자격증 응시 해외이민 유학준비
⊙특 전 : 팩케지 무료 복사 전철 통학권 35% 할인
HARRIS 및 OPC-286 XT/AT 구입시 할인
※ 방문자는 대형전산실 견학과 안내 및 적성검사 책자 증정
⊙문의전화 : 566-6266~7, 554-9981~2
⊙위 치 : 강남 전철역 뉴욕제과 옆 한일은행 뒤
OCI(졸업생과 재학생이 추천하는 실무교육전문학원)
동양전산전문학원

시대가 변하듯 TOEFL 도 변했습니다.
20세기 최종판!!
20년 저자 이재옥, 심혈로 쓴 영어지침서의 고갱이
대학생·대학원생·성인·영어교사 필독서
이재옥 TOEFL
전면개정
세계적인 석학들의 영어학 이론 집대성
영어구문/문법·어휘·독해 종합연구서
-내용·특징-
◎Vocabulary
(30000 어상당, 여타 어휘 참고서 능가)
어원중심의 체계적인 정리, 다양한 예문수록
◎Structure & Written Expression
(본편의 문제 약 30% 상당의 문법·해설 국내 최초 소개)
문법 및 구문의 문항별 2277제 체계적인 정리, 명쾌한 해설
◎Reading Comprehension
(170제 수록, 중·장문 효율적인 구문파악, 독해방향 제시)
부문별 분류, 내용 심층분석, 다양한 출제 문형제시
내용으로 고른 손 실력으로 보답합니다.
영어 실력이 미흡한 학생!!
Quirk문법기초
대학 저학년 지침서
-6개월 완성-
이재옥 기본 TOEFL
도서출판 소명 이재옥 TOEFL 798-5701~3 793-1018·2534

6월 1일 개강
파고다 외국어 학원의 자매학원
I.L.I
★세계무대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에게 I.L.I가 준비한 내용들
★★과목 : 영어, 일어, 불어, 독어, 중국어
기존 외국어 학원에서 강의하는 모든 회화및 문법을 강의합니다.
★★★다만 시설과 교수진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新 국제외국어학원
International Language Institute
SIDE BY SIDE의 창시자
원장 이 한수(HOPE LEE)올림
Tel : 代)735-3535
393-6655/6656
I.L.I
세종문화회관
광화문
교보문고

89하계방학
외국어특강
■개설강좌

08:30-09:50	10:00-11:20	11:30-12:50
*아카데미TOEFL	*아카데미TOEFL	*TOEFL청취력
*TIME	*영작문	*캠퍼스일본어
*VOCA. 워크샵	*영어순해	
*이재옥TOEFL	*VOCA. 22,000	
*BASIC ENGLISH	*시사TOEFL	
*영어회화 (초)	*헤럴드영문독해	

■강의기간 : 1989년 6월 26일 (월)~8월 14일(월)
매주 월요일~금요일
■수 강 료 : 각반 ₩10,000
■접수기간 : 1989년 6월 19일~6월 23일, 선착순마감
■접 수 처 : 어학원사무실(1캠퍼스 정문옆)
영어회화집중훈련프로그램
■캐나다SELKIRK 대학 강사진초청, 외국인 전담
■하루4시간(오전9시~12시30분)매주 월~금
■강의기간 : 1989년 7월 3일~8월 11일(120시간)
■수 강 료 : ₩120,000
중앙대학교어학원
FOREIGN LANGUAGE INSTITUTE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시리즈 마지막회

한국전쟁 그 기원을 찾아서 7>

◇글싣는 차례
1. 일제하 조선의 상황과 8·15해방
2. 순수해방공간의 정치역학 관계
3. 미·소군의 진주와 군정수립 그리고 분단
4. 이승만의 단정수립과 조국통일
5. 김일성과 북녘의 인민정권
6. 북녘의 사회개혁
7.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새로운시각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완의 전쟁"

전쟁의 이해는 민중주체의 관점에서

사회구조적 요건 충족돼야 역사현상 전개 가능

"바른인식 위해선 근거없는 신화 타파돼야 한다"

강 정 구
<사회과학대교수 역사사회학>

Ⅰ. 머리말

한국전쟁의 인식에는『누가 먼저 시작했나?』라는「자명한」질문과「자명한」대답에서부터 출발한다. 또 우리들 대부분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1950년 6월25일 새벽 몇시가까이라고 국민학교에서부터 줄곧 배워왔던대로 즉각적으로 대답할 준비가되어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명백한 것같은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우리의 신념과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에 기반한 해답과는 엄청나게 거리가 먼 한국전쟁의 인식을 가지고있다. 즉 1950년 6월25일이 전쟁발발일이 아니라 1945년 9월 미국군대가 인천에 첫발을 내딛어 상륙하는 순간부터 전쟁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역사인식의 괴리를 접하게 될때에 우리들은 신념과 나만의 체험에 기반을 둔 한국전쟁인식의 한계에 부딪치게되고 여기에서 탈피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된다.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규명에 의해서 신념으로서만이 아니라 과학적 탐구결과에 의해 뒷받침된 기존의 한국전쟁인식을견지 강화하든가, 아니면 객관적사실과 어긋나는 신념에 기반을둔 이제까지의 역사인식의 오류를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인식의발굴에 정진해야할 결단의 시기가 왔다고 본다. 현존의 한국전쟁인식에 관한 신념이 아무리 확고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하더라도 그 인식이 과학적 규명과 검증의 대상을 초월한 치외법권적 존재로 군림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한국전쟁과 한국현대사 일반은 과학과 이데올로기 사이에 놓인 가장 깊은 심연의 한 극단적인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글은 과학적 규명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성역으로서 심정적차원에서만 인식되어왔던 한국전쟁을 과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강조하고 신념과 개인수준 체험의 인식으로부터 과학적 인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방법론적 인식론적 발상전환을 주장하고 한국전쟁이 우리 과거 역사속에서 간단히 자리잡았다 사라진 스쳐지나간 단순과거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구체적 역사현장에서 끊임없는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사실이고 지금 우리의 의식과 행위를 제약하는 한국전쟁을 올바른 기준을 적용하여 규명하지 않으면, 즉 신념에 기반한 인식으로부터 과학적 인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역사의 진보적 발전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Ⅱ. 방법론적 전환

E. H. Carr는 역사현상의 인과적 설명이나 역사이해에서 개인의 초역사적 능력이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을 저속한 역사서술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려 역사현상이 전개되기 까지에는그러한 결정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구조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 선결조건을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하지 않은채 최종단계에서의 의사결정과정만을 중시하고 개인과 일부 집단에 인과요인을 귀착시키는 것은 그선결조건을 무시한 설명력없는 설명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형성과정을(social formation process)먼저 밝힌후 이것이 의사결정과정으로(decision making process)어떻게연결되는지가 규명되어져야한다.

이러한 종류의 역사분석은 주로 위인전이나 왕정사 또 구미사회과학계의 의사결정과정 중시론에서 볼수 있다. 예를 들자면 6월 항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인식에서 단순히 노태우 개인에게 촛점을 맞추는 6·29선언으로 보는 역사이해는 6월항쟁이전의 민중항쟁, 파쇼체제, 한국재벌의 성장, 시민사회 팽창등 여러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설명이다. 개인 노태우로하여금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규정한 사회적요건이 더 중요한 인과요인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전쟁의 경우 스탈린주도설, 박헌영주도설, 김일성주도설, 이승만단독주도설, 이승만·장개석·맥아더공모설등의 한국전쟁 설명은 최종순간의 의사결정과정을 중시한 분석으로 전쟁확대 이전의 사회구조적 모순과 민족모순이 팽창되는 과정을, 또한 언젠가는 곪아터질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 요건을 간과한 절름발이 분석이다. 이남의 경우 이승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어느 누구가 집권했더라도 (물론 한민당 계열에서 선택되었겠지만), 또 이북에서 김일성이 아니라 공산진영의 어느누구가 집권했다하더라도 6·25와 같은 대규모 전투행위는 피할수 있었을런지는 몰라도 남·북간의 전쟁은 거의 필연적이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다. 보다 사회적형성조건에 의한 한국전쟁의 설명이 이뤄져야겠다.

두번째로 강조되어야할것은 역사적 접근방법이다. 이것은 사회형성조건을 강조하는 방법론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수있다. 즉 사회형성조건을 밝히는 문제는 당대의 사회구조 자체에만 국한된 분석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역사적유산을 또 역사적으로 규정된 당대의 사회구조를 분석해야만한다. 한국전쟁의 경우 그 시발점을 1950년 6월25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조선이 일본제국주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된지 겨우 5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부각되어야한다. 일본제국주의 패망은 조선으로하여금 조선인 스스로의 역사를창조할수 있는 역사전환기를 맞게했다. 이 역사전환기는 그 이후 조선사회의 역사전개의 기본틀을 제공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였다.

이시기는 일본제국주의와 결탁한 조선인지배계급의 계급역량이 급격히저하되고, 부역자및 친일분자로 낙인찍혀 지배계급의 정통성을 상실하게되고, 조국해방운동을 주도한 민족주의 운동과 반봉건지배계급에 대한 계급투쟁의 활성화로 민중의 역량이 성숙되었고, 일제 총독부의 무력기구에 의존한 조선인 지배계급은 효과적인 물리통제력을 상실하였고, 일제시대에 급격히 팽창한 사회주의운동의 확산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건의 충족으로 내생적인 사회구조의 전면개편인 혁명시기를 맞았고 해방과 동시에 곧 바로 혁명이 시작되었다. 이 혁명의 전진은 외세의 개입으로 중도에서 파행성을 겪게되었다.

일제시대에도 그랬던 것 처럼 외세와 결탁으로 구 사회체제를 지속, 강화 시키려는 구지배계급과 외세를 배격하고 조선인 스스로 새로운 사회질서를 건설하려는 민중적기반을 가진 혁명세력 사이의 끈질긴 투쟁이 1950년 6월25일까지 지속되었다고 볼수있다. 흔히들 해방 이후의 사회적「혼란기」란 바로 이투쟁의 연속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전쟁의 연속이 1950년 6월25일을 기점으로 전투행위가 대규모로 확산된것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6·25사변이다. 역사적 접근 방법을 외면할 때에 우리는 1950년 6월25일이후의 단순한 전투행위에 촛점을 맞춰 그것이갑자기 치솟는 불길처럼 인식하게 되기가 쉽다.

해방이후 50년 6월25일 사이에 10만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이 숫자가 공식발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의 희생자는 훨씬 더 많을것으로 예측된다) 양진영 사이의 투쟁과정에서 희생되었다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한국전쟁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수 없게한다.

세번째로 필요한 방법론은 거시적 비교인과분석방법이다. 흔히들 한국전쟁을 이야기할때 두번째 제시한 역사적 접근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게되면 한국전쟁이 국내의 구지배계급인 수구세력과 민중적기반을 가진 신진혁명세력사이의 순수한 내전으로만 이해되기쉽다. 또한 미·소대결이나 냉전논리의 시각에서만 보게되면 단순히 미·소나 미·중공의 대리전 정도로 해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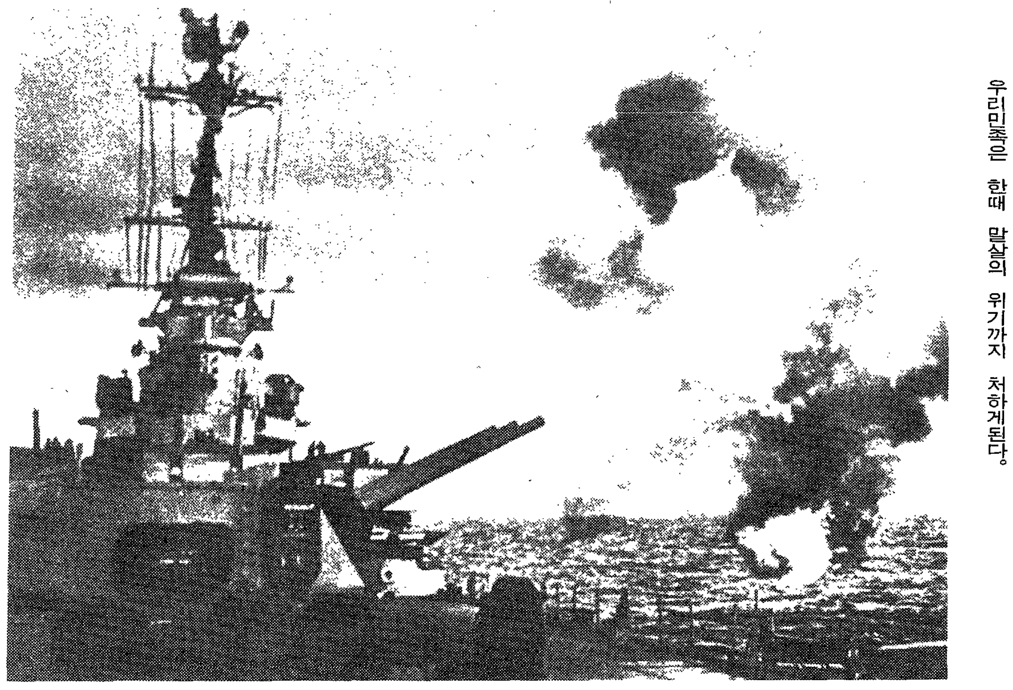
전자의 경우는 그리스, 필리핀, 이란, 중국등 2차대전직후부터 내란상태에 돌입하였지만 한국전쟁과 같이 외국군이 첨예하게 대결하는 국제전으로까지 발전되지는 않았다. 단순한 국내요인에 의한 내란이 전면적인 국제전쟁으로 비화하는 필요충분조건일 수 없다는 것이 이러한 나라들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차대전후 미·소 양국군대가 분할점령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면전을 야기시키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도 조선과 같이 연합국에 의해 분할점령 당했지만 전면전은 발발하지 않았다. 내적 균열이 외세간섭에 의해 어떻게 매개되느냐에 따라서 내전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한국전쟁과 같은 엄청난 비극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2차대전후의 조선과 가장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한곳이 베트남이 아닌가 생각한다. 외세와 구 지배계급이 결탁하여 식민지 유제의 청산없이 옛날의 사회질서를 복원하여 역사의 연속을 추구하는 남부월남과 식민지 유산을 일소하여 새로운 사회질서를 민중적 기반위에 구축하려는 북부월남과의 충돌이 월남대전이었고, 이 내전에 외세가 개입하여 확전일로를 치닫게되면서 엄청난 재앙을 민중에게 안겨준 점에서 아주 유사한 형태였다고 볼수 있다. 외세의 개입을 통제했더라면 아마도 유사한 역사전개가 처음부터 관철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두 전쟁은 유사성을 띤다.

비교인과분석방법은 한국전에 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에 유용한 해답을 줄수있는 방법론이다. 1952년부터 미국이 한국전쟁에 일본이 만주에서 실험했던 세균병기를 개발하여 한국전쟁에서 세균전을 치르고 있다는 논쟁이 제기되면서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미국이 이러한 비인도적인 행위를 한다는것을 상상할수 없다고 우상숭배식의 확고한 답변을 내린다는것은 이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될수 없다. 그것은 우리민족전체에 대한 모독이고 민족전체의 권리를 포기하자는 반민족적, 반인류적발상이다. 북한과 중공에대한 국제과학조사단의 조사보고서는 중공과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다.

만약 세균전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왜 미국은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동안에 또 전쟁이 38선을 경계로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는중에 이러한 비도덕적 추악한 전쟁을 치뤘느냐하는 문제제기를 할수 있겠다. 세균전은 전세를 결정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게 끌고갈 수 있는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런 전쟁을 수행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실험목적일 수도 있고 또한 쿠바나 니카라과등 공산권내지 친공산권국가에 행해졌던 저강도정책의 일환일 수도 있다. 즉 북한의 저수지 댐과 전 산업시설을 초토화하여 휴전이후 북한의 전쟁복구나 경제개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사회주의 생산양식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비해 열등하다는 사실을 제3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선전술의 일환으로 보는 가설을 세울 수도 있다.

또 즉각적인 선전전쟁을 목적으로한 것일수 있다. 미국의 공식적 반응은 공산치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무차별 학살과 빈곤 및 비위생시설의 결과가 전염병 발생으로 나타났는데도 공산측이 날조하여 책임전가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차별학살과 빈곤 및 비위생은 미군의 무차별 폭격과 참혹한 살상전의 결과가 아니라고 미국은 과연 떳떳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49년도 북한경제 지표는 전시인 1944년이나 43년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고 반면에 남한은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었다는 것은 미국주장의 허구성을 뒷받침하는 좋은 반박자료인 것같다. 월남전에서의 제초제등 화학무기사용, 비군사용 민간인시설, 심지어는 나환자 집단수용소의 연속적이고 조직적인 폭격, 쿠바·니카라과에서의 파괴행위등과 한국전에서의 북폭, 시한폭탄사용, 세균전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미국의 대공산권 전투, 전쟁, 매개행위의 일반적 성향을 추출해 낼 수 있는 장점을 이 방법론은 가진다.



세계역사상 최장인 41일간의 원산포격과 핵전쟁의 준비등으로 우리민족은 한때 말살의 위기까지 처하게된다.

마지막 네번째로는 이미 머리글에서 이야기한 심정적 또는 정부에 대한 충성적 차원에 근거한 비과학적 접근방법에서 객관적 사실에 의한 검증을 기반으로하는 과학적 접근방법의 채택이다. 왜 한국전쟁이나 현대사일반에 이러한 비과학적인 신념이나 신화에 의한 이해가 지배적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자. 해방이됨과 동시에 미국이 점령정책으로 포고한 일반명령 제1호는 일본제국주의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난 조선을 비롯해서 아세아 여러국가들에 대한 반혁명 선언이었고 또 반공산주의 선언이었다. 그 내용은 아세아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현지의 일본주둔군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현지의 치안권을 현지인에게 이양하지말고 종전과 같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라는 명령이었다. 즉 사회주의노선을 강하게 띠고있는 아세아 각지에서 민중의 기반을 가진 항일유격세력에게 일체의 권한을 이양하지말고 미국이 승인하는 집단이나 세력에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게 하려는 즉 반공적인 원대한 포석의 첫걸음이었고 그것은 또한 아세아 민중에 대한 반민중 선전포고였었다.

이 시점 즉 종전이 되자마자 미국은 모든 점령지역에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반공정책이 조선에서 미군정을 통해서 확산되고 특히 신탁파동을 기해서 친일친미보수세력에게 신진혁명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후 한국전쟁을 통해서 잔존 혁명세력을 거의 완전히 남한에서 제거하고 모든 한국전쟁의 책임을 단순히 북한정권이나 공산주의에 전가시킴으로써 분단과 반공을 국민속에 내면화시켰다.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지배집단으로 군림하던친일친미파를 대부분은 반공외에는 내세울 수 있는 정당성의 근거를 가질 수 있지 못하였고 또 반공때문에 그들은 지배권력체제를 재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극단적인 반공 주의자가 되었다. 반공이란 외적논리가 내적논리로 전환되면서 한국전쟁은 과학적규명의 대상에서 초월하여 오직 반공이데올로기와 심정적차원에서만 이해되게 되었다.

이러한 반공이데올로기의 매몰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개인적인 체험으로부터 한국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역사인식이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다. 며칠전 KBS의 심야토론 프로그램에서 전국교사협의회인 교사노동조합 결성을 반대하는 어떤 나이든 교사는 대부분 젊은 선생님들이 전교협의 중심체가 되어 있다고지적하면서 젊음 그 자체가 가장 우려할 요소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 이유는 젊은 선생은 한국전쟁도 4.19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안 했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국전쟁의 모든 잘못은 공산주의자 소행이고 4·19의 혼란기에 소위 혁신세력이 준동했고 5·16이 아니었다면 우리사회가 공산화 되었을런지도 모른다고 보고, 일사분란한 체제가 아니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듯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저변에 깔려있는 두가지 신화를 발견한다.

즉 역사적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즉 젊은이들은) 그 역사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한국전쟁이나 반공에 결부된 주장이라면 과학적인 설명이나 충분한 인과요인의 연결없이도 명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화야말로 가장 비지성적이고 비민주적·비민족적인 것이다. 북한사회의 정보가 모두 차단되어 반공논리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속에서 겪은 개인적인 역사체험은 한국전쟁의 총체적인식의 맥락속에서 통합적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졌을 때에야만 비로소 역사적 사실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의 아주 미미한 체험이나 반공에 매몰된 그 체험의 인식이 한국전쟁 전체의 성격을 규정짓는 극단적인 일반화로 치달을 때에 과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신화와 신념에 의해 역사는 난도질 당하게 되고 또 한국전쟁은 이런 과정을 거쳐 철저하게 난도질 당하여 왔었다.

두번째의 신화는 바로 분단과 한국전쟁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을 규정하고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본보기이다. 집권세력이 위기를 만날때마다 등장하는 좌경용공과 북괴남침등을 조작하여 반대 또는 민주세력을 억압하여왔던 것이 가능하였던 것도 바로 우리 현대사와 한국전쟁의 올바른 역사이해와 과학적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평화롭고 반민주적으로 또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도 과학적인 한국전쟁의 역사 재구성이 이뤄지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앞에서도 주장했지만 과학적 탐구의 대상에서 성역은 존재할 수가 없듯이 한국전쟁이라는 역사현장도 결코 예외로 군림해서는 안되겠다.

Ⅲ. 인식론적 전환

한국전쟁에 관한 많은 역사적 사실이나 인식은 반공의 신념에 매몰되어 근거없는 신화로 승격되어 왔었다. 탈신비화가 (demystify) 사회과학의 일반적 과제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국전쟁에 관한 근거없는 신화와 맹목적인 신념을 타파하여 인식론적 대전환을 기해야 된다고본다. 우선 첫째로 1950년 6월25일 누가 먼저 시작했나하는 식의 질문제기가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월남전에관해서는 누가먼저 시작했느냐?하는 식의 질문은 결코 제기되지 않는다. 이것은 월남전의 이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못하는 질문에 불과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방과동시에 반혁명, 반공산주의의 미국점령정책이 시행되었다는 점, 50년 6월 25일 이전에 10만명 이상이 두세력간의 투쟁에서 희생되었다는 점, 38선의 분계선 또는 다른 지역에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남·북간의 실질적인 전투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 이승만의 공공연한 북진통일론, 김구나 김규식등 당대 지도자들이 동족상잔의 가능성을 계속 경고해왔던 점, 해방 직후부터 주한 미점령군 사이에서 남·북전쟁 또는 미·소간의 전쟁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돌았다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하는 책임소재를 밝히려는 질문은 한국전 이해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의 성격을 왜곡시키는 질문임에 틀림없다.

단지 UN이라는 미국세력의 독무대에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했다는 사실때문에 무의미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빤히 들여다보이는 답을 유도하려는 성질의 질문은 한국전쟁의 이해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야한다.

두번째로 인식전환이 필요한 점은 한국전쟁은 단순한 전투행위가 아닌 총력전인 전쟁이라는 사실이다. 전투는 단순한 군사력 즉 병력과 무기등에 국한된 좁은 의미이지만 전쟁이란 통치집단과 피지배집단, 군사력, 경제력, 지배집단의 정통성등 그야말로 모든 자원이 총동원되는 동원능력의 대결인 것이다. 6·25의 확전 발발시점에서 단순한 군사력 즉 병력과 무기의 수준은 남북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유사한 전투능력간의 대결이었지만 6.25확전을 계기로 결과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또외국군의 개입을 통제하여 남북의 동원능력을 고립시켜 측정했을때에 어느 쪽이 동원능력이 우세하였으며 그우세한 원인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는 이제까지 별로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다. 전투가 아닌 전쟁으로 접근할 때에 지배집단과 민중간의 위상을 보다 더정확히 포착할수 있게 되고 남북의 민중이 바라보는 한국전쟁상을 이해할 수있을 것 같다. 전쟁이란 실체가민중에게 어떻게 다가왔으며, 남과 북의 민중은 각기 자기지역의지배세력과 다른지역의 지배세력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남북 각각의 점령정책, 그 점령정책에 대한 민중의 호응도와 지지도등에 대한 질문은 밑으로부터의 역사로 한국전쟁을 설명하는 올바른 인식이다. 이런 인식은 전투가아닌 전쟁으로 즉 민중과함께하는 전쟁으로 바라볼 수 있을때에만 가능하다고 보겠다.

세째로 민중이 바라보는 한국전쟁과 민중이 겪은 한국전쟁에 대한 문제제기와 거기에 걸맞는 설명을 제시해야한다. 이제까지는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역점을 둔 의사결정과정, 전투행위에서 전략·전술을 다루는 군지휘관, 미·중·소간의 외교관계등 전쟁의 주체에서 민중을 제외시킨 문제제기가 주종을 이루었다. 북한의 민간인 사상자 약2백만, 남한 민간인 1백만, 남·북한 군인 각각 50만, 중공의용군 1백만, UN군 일부등의 통계를 본다면 전쟁의 그 비극적인 고통을 가장 처절하게 겪을수 밖에 없었던 장본인은 바로 민중이었다. 이런피해적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전쟁이란 자원동원능력의 대결이라는 성격을 이해한다면 민중이 얼마나 집권층의 동원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방향이 뒤바뀌지는 그야말로 민중이 전쟁의주체가 된다는 점에서도 민중이 본 한국전쟁은중요한 분석대상이 되어야한다.

민중이 겪은 또 민중이 본 한국전쟁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점은 점령정책이라고 할수있겠다. 1950년 부산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남한의 대부분 지역이 (약90%) 공산치하에 들어갔다. 그당시 북한의 중요 점령정책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농지개혁, 지방인민위원회 대의원선거, 노동법제정, 친미·친일·반혁명분자 소탕등을 들수있겠다. 커밍스의 주장은 남한의 농지개혁이 그런대로 성공적으로 될수있었던것도 북한점령당시 실시한 전시중의 농지개혁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령정책에 대해서 민중이 어떻게 반응했으며, 전후또는 전쟁중 이정책이 민중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라고 할수있겠다. 이들 사회개혁조치와 민중들의 의용군 지원이나 종전후의 빨치산 지원과의함수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은지배권력위주의 한국전쟁인식에서 피지배계급인 민중을 전쟁주체로보는인식의 대전환이다. 다른한편 인천상륙작전 이후 38선을 넘어 남한군과 미군이 북한지역을 점령했을 때에 친공산주의자나 비협력자 처벌등 일반 점령정책에서 얼마나 민중의 이익과 생존이 보장되었으며 민중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이주나 강제하산등 전쟁확대 행위등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북한점령시 시행한 사회개혁조치를 어떻게 폐기 잔류시켰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볼수 있겠다.

5면으로 계속→

東岳路

우리는 하나

『전경·학생 하나되어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라는 구호로 시작된 총학생회 주최의 「학생·전경친선 체육대회」는 이번 목멱대동제에있어 가장 의미있고 뜻있는 행사중의 하나임이 틀림없을것이다.

미제국주의가 남긴 분단된 조국의 영토안에 독재정권의 마수로인한 화염병과 최루탄의 공방전으로 어쩔수없는 대적관계에 놓여있던 학생과 전경간의 대립관계해소및 공동의 적인 노태우정권과 미제국주의를 타도하기위한 취지아래 개최된 이행사에는 그간 공방전으로 인해 때아닌 눈물을 흘려야했던 학교인근주민들도 초청되어 학생과 전경 모두를 응원하는 흐뭇한 자리였다.

서로의 응원단을 교환하여 펼친 응원전에 있어, 학생들의 「반전반핵가」에 맞춘 전경들의 수기응원전이나, 즉석에서 교습이 이루어진 평양축전가와 춤, 경찰대학 악단의 연주에 맞춰 함께 추는 디스코 등에서 그동안 전경과 학생간에 쌓인 묵은 감정을 털어버린다는 것과 그보다 같은 시대를 사는 젊은이로서 서로가 적이 아니라 공동의 적인 미제와 노정권의 타도라는 공감대를 마련하는 자리였다는데 더욱 큰 의의를 부여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일간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는 전경과 학생의 화해라는 극히 단편적인 부분만을 부각시킴으로써 독자나 시청자들로 하여금 정권과의 화해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관제언론의 굴레를 아직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공동우승으로 끝난 경기에서 주최측인 학생이 전경팀에게 우승트로피를 양보하는 미덕은 보는 이로 하여금 뿌듯하게 하였다. 그러나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는 전경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한 학생은『얼마 안되어 대립의 관계로 설수 밖에 없는 이 땅의 현실이 원망스럽다』라고 말하며 씁쓸한표정을 짓기도.

<안정미 記者>

"평축참가투쟁…통일 앞당기는 계기만들터"

청년학생축전 본교 준비위원장 이동규君을 만나

인터뷰

정부 현실적 불가능 云云, 참가방해 억지

본교, 학과·학년별 1인씩 총1백명 참가

『해빛은 넘치여라 평양하늘에／산넘고 바다건너 우리는 왔네／미래의 주인은 청년학생들／축전의 노래 높이 부르며 뭉쳐나가자』

오는 7월1일부터 8일간 평양에서는「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의 이념을 내걸고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이 열리게된다.

세계청년학생의 大同祭라 할수있는, 그리고조국의 평화운동·통일운동의 새로운 계기가될축전에 대한 본교생들의 인식전환과 객관적 이해를 돕고자 본면에서는「반미자주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제13차 청년학생축전 동국대학교 준비위원회」위원장 이동규(농과대학생회장·임학4)군을 만나 보았다.

—먼저 세계청년학생축전의 목적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반제연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라는 축전의 구호로 대신할 수 있겠죠. 북한에서 발행한 백과전서에는「사회주의 나라 청년학생들과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 진보적 청년학생들의 단결된 역량을 시위하며 친선을 도모한다」라고 목적을 밝혔다더군요.

—축전이 한달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본교에서는 참가를위한 구체적 준비가 미흡하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축전에 대한 관심이 미비한것은 학생대중의 인식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학생들이 축전에 꼭 참가해서 조국통일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의지보다는「평양에 한번 가보고싶다」느니「가서 실컷 부여잡고울어나보자」는식의 감상적 차원에 머물러 실천이 거의없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다른나라는 모두 참가하지않더라도 남한의 백만 청년학도모두가 참가하기를 희망한다」고북한 청년학생들이 말했다던요.

▲저도 그말을 듣고 가슴이찡해 오더군요. 피의 힘이라고나 할까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축전참가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국토통일원의 발표에 따르면「축전참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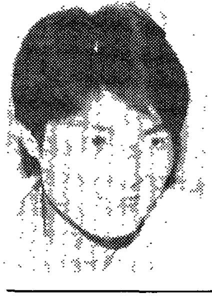
▲전대협이 축전에참가하면 사회주의 단체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노정권은 말하면서도 축전참가를 반대하지는 못합니다. 북방정책남북교류등 대국민 약속에 대한 중압감과 축전이가지는 정치적 영향력을 저울질하며「원칙적찬성」이라는 엉거주춤한 입장에 서있기 때문이죠. 얼마전 국토통일원 장관이「축전이 40일밖에 안남았다」「전대협에 북한을 동조하는 세력이 많다」며 현실적 불가능설을 발표했으나 이것은 학생들의 축전참가를 막기위한 터무니없는 억지로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축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전대협에서 총 주관하고 있는것 같은데 전대협과 연계는 잘되고 있습니까.

▲초청자체는 전대협이라는 단체로 되어있으나 백만학도 모두가 전대협의 일원이죠. 전대협 산하에는 전국에 걸쳐 총19개의 지부가 있는데 중요한 사안은 전대협 중앙회의에서 결정되고 그 결정에따라 각준비위원회들은 구체적 사업방향을 세웁니다. 이번 축전참가투쟁의 경우에는 전대협의 사안을 전적으로 전달받고있는 셈이죠.

—현재 축전에 참가할수 있는 최대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

▲선수단·행사요원·참관인·통일선봉대 모두합쳐 1만7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선봉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 1백29개 대학에서 각5명정도로 8백명을 뽑아 기수단으로서「축전의 꽃」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이동규君 <농과대 임학과>

—그러면 본교생들은 얼마나 참가하게됩니까.

▲통일선봉대 5명, 참관인·대표단 각50여명등 총1백여명이 참가하게 될것 같습니다.

—대표단은 각과, 각학년별 1인씩이라던데 선출은 어떻게 하는지요.

▲각과, 각학년에서 전대협 통일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개최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1인을 선출, 참가투쟁의 대중화를 이루어야겠지요.

—이화여대의경우 축전참가 위원장선출시 후보가 4명이나 출마해 선거유세 경합을 벌이는등 투쟁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던데요.

▲우리학교도 법과대·사범대등 일부를 제외한 단대대표는 이미 선발되었고, 문과대의경우 과위원장까지 선발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활동가 중심의 폐쇄적 선발방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투쟁과 축전투쟁을 두개의 축으로 전개하면서 주도권탈환의 분수령이 될 6·10을 준비하자는 투쟁기조가 실현되기위해서는 분위기가 고양되지않고있는 축전투쟁의경우 몇가지 조치가있어야 할것 같은데요.

▲전대협 차원에서 이미 6·3통일대토론회및 실질참가확인작업의 두가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6·3통일대토론회에서 청년학생의 의지를 점검하고 실질참가를 확인받기위해 국회를 대상으로 협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축전준비사업의 일환으로 범국민 통일한마당을 기획했다고 하던데.

▲내달 27일부터 3일간「7천만 겨레의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주제아래 동대문 운동장에서 모의축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교 준비위원장으로서 축전에 임하는 각오를 듣고 싶은데요.

▲축전참가투쟁은 외세에 의한 분단의 현실에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식에 입각해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준비위원장으로서 학생대중에게 축전참가 투쟁의 진의를 알리기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박영란記者>

기획논단

국보위서 급조된 위헌법률

-안기부법의 반민주성을 해부한다

독재정권 유지위한 私조직으로 결성

조직·활동·예산공개및 정치중립 견지해야

오늘날 우리사회내에서는 외세와 군부관료·독점재벌을 기반으로 그들 소수 지배층의 이익을 위하여 절대다수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탄압해 온 국가기구및 그 조직과 활동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각종악법을 개폐하기위한 운동이 사회각분야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불법구금」「고문」「용공조작」등에 의한 인권탄압의 대표적기구로서, 어느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비밀의 성에서 국민의 세금을 무한정으로 소비하며 오직 독재자에게 충성하고 책임을 짐으로써 독지권력을 유지하는데 봉사해 온 안기부 역시 법치주의의 형식적 원리에 따라「법률」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해 왔는데 이하에서는 안기부법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안기부의 불법적인 권력행사와 인권유린이 단지 독재정권의 잘못된 법집행과 운영에 기인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자체에 처음부터 내재된 안기부의 본래적 기능인지를 알아보고 그 개폐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안기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법이 5·16쿠데타후에「국가재건최고회의」에의해 제정되었듯이 안기부법은 5·17쿠데타후에「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졌다. 이들 기관은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장악한 군부집단 또는 그 하수인들에 의해 구성된 정치단체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이기는 커녕 국민의 민주화열망을 총칼로 짓밟은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국가변란단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만들어진 안기부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하는 법률로서의 절차적 요건을 결여했으므로 비록 그것들이 법률의 외관을 갖추고 집행되었다하더라도 이는 법률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외에 안기부법의 내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안기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보면 국외정보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시설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등의 수사, 안기부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및 보안업무의기획 조정등으로 광범위하게 되어있어, 안기부가 국내외의 모든정보를 독점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에 개입 간섭할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권력분립및 국가기관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배제하고 대외적으로 아무런 감시를 받지않게 되어있어, 그자체에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내포되어있다.

둘째 안기부법제3조, 제9조등에 의하면 안기부조직은 안기부장이 정하고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수있으며, 현역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수있게 되어있어서 그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화 되어있다.

셋째 안기부법제5조에 의하면 안기부의 조직, 소재지, 정원, 예산및 결산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안기부의 조직과 활동에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있고 따라서 안기부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고있다.

네째 예산상의 문제점으로 안기부법 제10조의 각항에 의하면 안기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이 감액할 수 없게되어있고, 세출예산은 내력을 밝히지않고 총액으로 하며, 안기부의 예산은 다른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에따라 안기부는 아무런 통제도 없이 국가예산을 거의 무한정으로 사용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게되었다.

다섯째 안기부법은 안기부에대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통제를 배제하고있어 외부기관의 견제와 감시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되어있다.

이와같이 안기부법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최고의 목표로하여 권력의 분산과 상호감시 견제, 의회에 의한 통제, 공개행정의 원리등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으로 가득차있다.

이는 곧 안기부법이 군사독재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감시·탄압하는 사적인 비밀정치조직의 결성을 의도하였음을 알수 있고, 따라서 안기부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므로 위헌이고 무효이다.

따라서 안기부는 정당한 국가기관으로서 존립할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하며 현행 안기부의 기능중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은 국외정보의 수집·작성 배포기능 정도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기능을 위하여는 이미 반민주적 타성에 속속들이 물든 안기부의 개혁에 의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안기부와 인적·물적으로 단절되어 민주적 국가기관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이들 기관의 조직의 대강은 정부조직법의 규정대로 국무총리의 관할하에 들어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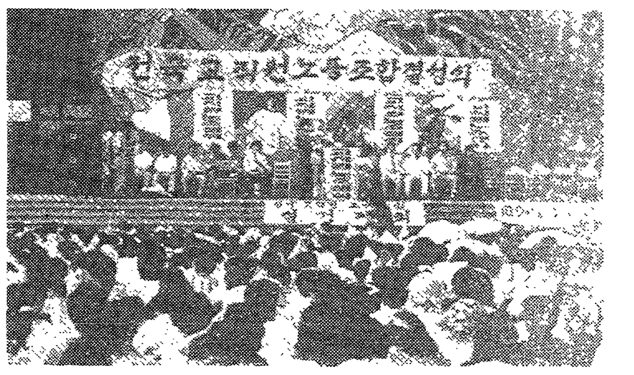
이들 기관의 비밀활동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조직구성과 소재지 활동, 예산등의 공개여부는 국회가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다른기관의 업무에 간섭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등 공작활동을 하는것은 금지되어야하며, 그활동내역은 문서에 의하여 책임과 내용을 명백히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가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김 한 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직원도 성스러운 노동자다

민족·민주위한 참교육 실현의 발판

4·19직후「한국교원노동조합」이 전신



지난28일 연세대에서 열린「전국교직원노조 결성대회」장면.

1989년 5월28일, 이는 역사적인 날이다. 한국교직원노동조합이 힘찬 출발을 한 날이기에 이날은 한국교육사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날이 될 것이다.

왜, 지금 교직원노조가 건설되지 않으면 안되는가?

교육이 망했기 때문에 교육을 재건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육이 어느 지경에 놓여 있는가? 교육위기, 교육부재의 목소리는 이미 보편화된 상태이고 교육문제는 가장 첨예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이 교육부재의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교육주체들이 단결해야 가능하다. 학생과 학부모가 비인간적인 입시경쟁교육을 직시하고 문제제기를 해야한다. 교원들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교육적 사명을 자각할 때가 되었다. 교원들이 자각하는 움직임은 오랜 역사를 가진다. 28년전 4·19혁명직후 결성된 한국교원노동조합은 그힘찬 함성이 우리의 현대사를 흔들었다. 그 후 28년이라는 기나긴 동면의 세월, 교원들은 모진 군사독재정권의 군화발 아래에서 망해가는 교육에 가슴치며 오직 재기의 그날을 기대해온 것이다. 우리도 한번 힘차게 일어설 날이 있으리라고!

동면을 깨우는 북소리는 80년대초에 시작되었다. 5·18광주민중항쟁에 자각한 교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손을 잡고 일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드디어 86년5·10교육민주화선언, 87년 전국교사협의회 건설, 그것은 89년 전국교직원노조건설에로 나아가기 위한 계단들이었다. 이땅에 망해버린 교육을 일으켜세우기 위한 교원들의 자각된 몸부림이었다.

왜, 교직원노조가 건설되어야하는가? 교직원들이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박탈된 정당한 권리를 찾는 길이기 때문이다.

교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일이라고 걱정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고맙다. 교사는 성직이므로 전문직이므로 노동자가 아니라고 걱정을 많이 해준다.

노동자들은 성스럽지 않은가? 열악한 작업환경,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에 시달리며 이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보다 더 성스러운 것이 어디 있는가? 교원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자각하는 데서 참된, 성스러운 교육자상이 나온다. 중산층허위의식을 파악하고 일하는 삶,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존중하는 올바른 노동관에 설 때 참된 교육이 나온다.

그러므로 교원들은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선포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한다. 박탈된 노동3권을 찾아야 한다.

왜 교직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하는가?

교원들 90%이상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제6공화국 헌법인데, 기묘하게도 법률은 제5공화국 법률그대로이다. 제6공화국 헌법정신에 맞추어 법률을 고쳐(국회에서) 행정부로 이송하면 행정부에는 5공귀신이 도사리고 앉아 거부권이라는 도깨비방망이를 휘둘러 돌려보낸다.

국민이 원하는 것도 헌법의 정신도, 교육적 위기도 아랑곳없이 교육을 이데올로기 통제장치로 보는 집권세력은 교원의 권리보장도, 참교육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그간 전교협이 교육법개폐투쟁을 위해 약2년간온갖 청원·진정·소송을 다해보았으나 응답은 없었다.

그러면 교원들이 어떻게 해야할까? 자주적 노동조합의 본래 정신에 맞추어 노조를 설립하는 길뿐이다. 건설해놓고 합법설쟁취투쟁에 돌입하는 길 뿐이다. 저들의 머리는 너무 굳어서 거센 망치로 두들기기 전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우리 교원들은 교육문제를 더이상 방치해놓을시간이 없고 여유도 없기에 사소한 실정법때문에 소명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전국의 교직원들은 지난한 노조합법성쟁취투쟁에 들어갔다. 이 투쟁이 끝나는날, 참교육은 우리앞에 성큼 한발짝 다가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외롭지 않다. 교실에는 60명씩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굴리는 우리의 희망이 있고, 그 뒤에는 우리의 뜻을 이해해가고 있는 학부모들이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천만 노동형제들의 대열이 있고 단결된 40만명의 교직원들이 있다.

이 땅의 교육, 민족민주교육은 이제 단결된 전국 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유 상 덕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前성동고 교사>

4면에서 이어짐

특히 한국전쟁중 발생한 모든 잔학행위와민중학대행위가 공산군의만행으로만해석되어져있고(남한정부 발표는 처형 12만8천9백86명 납북 8만4천명) 이러한 인식이 지배집단의 반공제일주의와 지배구조 재생산과생밀접히 관련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중에관련된 역사적 진실이 하루 빨리 밝혀져야 할것이다.

또한 지금 현재 북한 주민이 직접체험하였고 이 체험을 기반으로한 한국전쟁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남북민중의 인식차이를 비교연구하는것은 한국전쟁의 평형적인 평가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체험은 남한 군대와의경험보다는 미군과의 관계가 더중요한 체험의 기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포로 행렬을 공격하는 이북주민들을 북한군이나 중공병사들이 애써 제지하는 많은 사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이었는지는좀더 심층적인 분석이 있어야겠다.

엄청난 민중의 목숨과 질곡을 강요한 중요사례들은 한국전쟁에 새로 사용한 인마살상을 주목적으로 개발된 네이팜탄, 세계역사상 최장의 함포공격이나 공중폭격으로 알려진 41일간의 원산폭격, 1차폭격후 인명구조나 피해복구를 위해 동원된 민간인 살상용으로 쓰인 시한폭탄의 빈번한 사용, 미해군 역사상 최장의 기록을 세운 861일간의 원산항포위공격, 농업용 저수지 뗌까지도 폭파시켜 대홍수를 일으킨 제네바협정 위반행위, 흰 치마를 입은 한국여자들의 치마속에 무기나 게릴라가 있다는 가정하에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인종차별주의… 등이다. 이 엄청난 비인도적 잔학행위를 분석하지 않고는 현재 북한민중이 가진 대미적개심, 주체사상의 형성등을 제대로 설명할수 없을 것이다. 중공군이 참전했을때에 7대불가사의라는 수수께끼아닌 수수께끼로 미군을 당혹하게 하였다고한다.

기동력, 보급품, 군장비등 모든면에서 미군에 비하면 수준이하였던 중공군들이 실제 미군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기동력, 정확한 정보등으로 미군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고한다. 이 불가사의가 결코 신비한 불가사의가 아니라 주민, 북한유격대, 중공군3자의혼연일체의 결과였다는 일부의 분석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민중주체의 한국전쟁인식은 근본적인식전환을 할 필요가있다. 전쟁의참혹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게되는 집단이 민중이고 전쟁중 미국이 핵폭탄 투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채 핵공격의 마지막 순간까지 갔었다는 가공스런 민족말살 위기를 생각한다면 남북의 민중이 함께 뭉쳐서 다시는 이러한 동족상잔의 전쟁발발이없도록 함께 투쟁해서 민중의 의지를 관철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네째로는 한국전쟁에서 단순히 전투의 진행상황에 촛점을 맞추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전쟁포로, 피난민 또는 월남·월북인 문제, 휴전협정에서의 지연작전, 제네바 정치회담등의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거나 완전히 왜곡되어 우리들에게 알려져있다. 이들 역사사실에 드리워져있는 허구의 베일을 과감히 벗겨야한다는 것이다. 1951년 말까지 UN감시하에 있던 6천6백명의 포로가 사망한점, 미국은 포로수용소의 고위직 간부를 장개석의 국민당원에게 맡긴 점, 무쵸 미대사의 극비문서는 극에 달한 강압과 증오는 포로수용소의「친공·반공지도자와 중공인 포로 수용소의 반공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지적한 점, 90%이상의 중공포로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귀환하기를 원하였는데도 휴전회담의 미국대표인 죠이제독이 그의 일기장에서 밝혔듯이(공식적인 발표는 그의 일기장 내용과는 달랐다는 점을 유의할것)「송환을 원한다고 표명한 사람들은 모두 실컷 얻어 맞아 골병이 들거나 또는 살해되었다…대부분의 포로들은 공포심에 질려 자신의 선택을 정직하게 표현할 수 없었다」는 점, 서방측 포로의 학대행위로5천5백명이상의 미군포로가 학살당했다고 주장하다 3백65명이「반란」으로인해 죽었다고 정정한 사례등이 우리들에게는 전혀 알려져있지않다. 포로에 관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것은 반공포로 석방이라는「찬사」, 서방포로를 학살했던 잔인한 북한의 만행, 그리고 중국인의 세뇌공작등이 고작이다. 영국의 공군원수였던 로드카버의 포로취급에 대한 지적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있는 판에박은 신화적인 인식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것을 잘 말해준다.「중공측 관할하에 있었던 UN포로들은 비록 강도를 달리하는「재교육」과정을 받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미군하의 포로들보다—수용소가 공산주의자, 한국인, 또는 중국국민당원, 어느쪽에의해 지배받고 있던지간에—모든면에서 더 나은 상태에 있었다.」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자의에 따른(또는 비강제적인) 송환』을 주장하는 미국측 포로처리 지침은 환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포로들이 외부의 간섭없이 자유스럽게 자기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스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때에는 양측의 추악한 선전도구로 전락될수 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된다. 자유라는 이름아래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묵시적으로 반공을 지지하거나,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선호한다는『결정적』인 증거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선전물로 포로를 이용했던 또 다른 추악한 전쟁의 모습이 폭로되어야 할것이다.

이와비슷한 또 다른 예는 피난민 또는 월남인 문제인 것같다. 서방측은『발로투표했다』고주장하면서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민중의 반응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남쪽으로 이주한 수십만의 월남인이란 것이다.

한편 북쪽은 많은 사람들이반대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하면서 미군과 남한군에 의해서 강제로 이동되었거나 원자탄의 위협, 또는 미국의 무차별 폭격때문에 단순히 살기위해서 남하했다는 것이다. 과연『발로 투표했다고』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에서 자유로히 자기가 선택한대로 이주할수 있었을까? 1950년 9월28일 서울수복당시에 절반이상의 서울 시민이 서울을 떠난것은 이승만정권이나 미국식의 자본주의를 반대한이주였다고 즉 반대방향으로『발로 투표한』본보기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류의 일방적인 아전인수격의 역사자료해석은 이론과 증거간의 연결타당성이(construct validity) 부족한 좋은 예라고 할수있겠다. 그야말로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역사자료 해석법이라고할수있다. 보다 과학적인 사실규명과 올바른 평가기준을 적용할 때에야만 한국전쟁의 참모습이 밝혀질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볼수있겠다.

또하나 엄준한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할 사항이면서도 전혀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역사사실은 휴전이후 1954년 4월에서 6월까지 진행되었던 제네바정치회담이다. 이 정치회담은 휴전협정에서 합의한 것으로 군사적 휴전에서 더 나아가 정치적, 사회적 분야에서 남북간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휴전당사자와 남한이 휴전협정이후 별도의 회담을 갖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회담에서 서로 대립된 문제는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선거문제와 외국군철수문제였다. 남한은 UN감시하에 남한의 현존헌법에 의해 단지 북한에서만 선거를 치른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그것은 남한에 의한 북한의 합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UN 즉 미군측은 UN감시하에 인구비례에 의한 전국적 선거를 주장했고 북한측은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감시아래 전조선위원회가 관리하는 전국적 선거에 의해 통일 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북한은 선거이전에 모든 외국군대의 동시 및 비례적철군을 제안했고, 미국과 남한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정치회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북한측은 우선 한반도의 평화조건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남북 쌍방이 10만 이하로 군사력을 감축하고 경제와 문화교류를 위한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쟁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위원회등을 설치할 것들을 수정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주도하의 UN은 정치회담의 결렬을 선언하고 더이상의 정치회담은 이제까지 제대로 속개되지 못하고 반세기동안의 조국분단이란 뼈아픔을 안겨주었다. 전체민족의 정당한 요구인 통일정부 수립에대한 휴전당사국들인 미국, 중국, 북한 그리고 남한정권들이 마땅히 수행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대가로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도 준전시 상태인 휴전협정아래서 인권과 자유와 자주를 박탈당하고 있는것이다.

Ⅳ. 맺는말

분단의 올바른 이해와 과학적인 설명은 분단을 극복하는 역사실천에 즉 분단극복과 통일로의 승화에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가 내면화된 외적논리인 반공에 의해서 또는 개인숭배사상에 의해서 실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고 왜곡되어 있다면 통일실현이라는 역사실천에서 아무런 역사교훈과 실천지침을 제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더 분단지향적이고, 반민족적, 반민중적인 그래서 반역사적인 역사인식으로 지향하게된다. 이것은 우리들의 살아있는 역사체험으로 입증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전쟁의 과학적 규명과 이해를 위한 인식론적·방법론적 전환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지금와서 징계나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민족과 민중의 질곡을 타파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역사를 창조하는 역사실천의 디딤돌을 구축하는 역사적·민족적요구에 부응하는 숭고한 사명이다.

◇「국어교사모임」의 역할과 과제

교과서개정 지침서는 자주교육의 초석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 배제된 민주적 교과 실현

학교교육에서 교사와 교과서가 차지하는 역할과 위치는 절대적이다. 올바른 학교교육, 참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교사는 어떠한 권력이나 정파, 종교 등에 구애됨이 없이 진실과 양심에 따라 가르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과서는 구구절절 외어야 할 경전이 아니며 수업에 필요한 하나의 참고자료이다. 교사는 교과서를 자유롭게 해석,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가르쳐야 한다.

교사의 주된 일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며 가르치는 일이 어떠하냐에 따라 교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결정된다.

해방 후 역대 독재정권하에서 교사들은 억압과 굴종속에서 한낱 지배이데올로기의 전달자, 홍보자로서 전락하였다. 일방적으로 독재권력의 자기 선전으로 가득찬 편향된 교과서를 가르칠 것을 강요받으면서 교사들은 자신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송두리채 짓밟히는 데 대한 깊은 좌절감과 분노를 가슴깊이 쌓아왔다. 이러한 좌절감과 분노를 발전적으로 한차원 높여 교사들의 그간의 안일과 패배감을 씻어버리고 참교육실천을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한 움직임의 하나가 국어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이며 각 교과가 모인 교과모임연합이다.

국어교사모임은 88년 교사운동의 괄목할 만한 성장속에서 참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내적요구를 바탕으로 교과내용의 자주성·민주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전망속에서 시작되었다. 교과교육에 대한 연구는 그전에도 있었으나 대부분 고립된 개인들의 연구일뿐으로 그 성과도 널리 공유되지 못했다. 이에 고립·분산성을 극복하고 집단적인 연구와 성과물의 공유 필요성을 느낀 교사들이 모여 지난해 3월27일 국어교사모임을 창립하였다.

전교협이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라는 포괄적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활동에 있어서는 조직확대 사업, 선전활동, 교권활동에 국한되고 있기때문에 국어교사모임의 활동방향을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의 내용확보라는 측면을 보완하는 역할을 자임하였다. 창립과 동시에 교과서 제도에관한 자료, 수입사례 등을 담은 회지「우리말 우리글」을 발행하여 교협에서 포괄하지 못한 미조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의 올바로 가르치고자 하는 정서에 파고드는 대중적인 선전을 통한 회원확보에 나섰다.

현재는 충남·충북·부산·광주·전남·대구등에 지역회를 창립하는 등 전국적 조직으로 확산되어 1천여명의 회원을 헤아리게 되었다.

국어교사모임의 활동은 초보적인 수준에서 교과내용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면서 올바른 수입활동의 제시, 교과서 내용의 비판을 통해 교과서제도와 내용에 대한 부분적 문제제기를 그 내용으로 하는 연구·선전·교육활동에 치중되어 왔다.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라는 전교협의 실천강령속에서 국어교사모임은 국정교과서폐지와 검인정제개선을 주장하고있다.

연구활동에서는 중앙에「고등학교 연구모임」「중학교 연구모임」「국민학교 연구모임」「어학 연구모임」「연변 조선어 연구모임」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지역별 연구모임이 활동하고 있다.

「개편교과서 지침서」는 바로 중학교 연구모임에서 만든 것이다. 현재 문학 작문 대체교과서 제작작업과 지침서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연구모임은 주로 교과진도 내용분석 수업자체 개발을 중심으로 하여 현장교사에게 밀착할수있는 연구성과를 개발 보급하고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회보「우리말 우리글」무크지「교과교육」「통일을 여는 국어교육」「중2·3학년 진도분석 자료집」기타 출판물을통해 보급하기도 하고 정기월례강좌나 방학중 회원연수를 통해 확산시키고있다.

한편 국어교사모임을 올바른 학생문화의 형성을 위해「청소년 문화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교사들의 교과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할 문교부가 반대로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교사들의 교과연구를 탄압하는데 발벗고 나섰다. 문교부는 4월17일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국어교사모임에서 펴낸「개편교과서 지침서」의 분석 결과와 방침을 발표하였다.

문교부는 이 지침서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목표와 내용,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간상을 편향된 시각에서 해석, 비판하고 학생들에게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고 의식화 교육을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분석, 학교 수업중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는 교사는 교단에서 축출하겠다고 언명하였다.

이 발표는 그대로 관제언론에 확대보도되고, 합수부와 교육관료의 교사사찰이 공공연히 자행되어져 왔다.

문교당국이 이제까지의 편향된 독재교육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교사들의 민주교육에 대한 열망과 노력을 편향된 시각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특정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있다면 현재의 학교교육이야말로 특정 정권에 유리하게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있으며, 의식화교육을 하고 있다. 국정·검인정 제도를 통해 발행된 현행 교과서는 교사의 의견을 배제한채 일방적인 정권선전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러한 교과 내용들이 주입식 입시교육을 통해 아무런 반성없이 수용되고 있다.

우리가 펴낸 지침서는 이러한 특정 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에 찌든 학교교육을 바로 잡기에는 너무나 미비해서 오히려 부끄러울 지경이다.

문교당국은「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제81조「이 령에 의한 교과용 도서 이외의 도서는 이를 수업중 사용해서는 안된다」에 근거 수업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교육법과 시행령은 교과서의 제작, 검열, 사용을 전적으로 문교부가 독점 규제하도록 되어있는 대표적인 교육악법이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교과서 제도는 그간 학교교육을 독재교육으로 편향, 왜곡시킨 주범이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국정교과서의 폐지와 검인정제의 개선을 주장하였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번 지침서 탄압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문교부장관에게 위법을 폐지할 용의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개편교과서 지침서에 대한 탄압은 참교육을 좌경의식화로 몰아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를 분열시킴으로써 교직원노조 건설을 봉쇄하려는 치밀한 기도하에 이루어졌다.

애초에 문제제기가 문교부가 아닌 합수부와 청와대에서 발단되었음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매카시선풍을 일으켜 교육계를 중세 마녀사냥터로 몰아가려는 의도는 좌절되었다.

교과내용에 관련된 문제는 어느 한 교과의 내용이 고쳐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교육구조의 문제이므로 단위교과차원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어, 역사, 영어, 공업, 윤리, 미술, 지리, 과학, 사회등의 교과가 모여 교과모임연합을 5월 11일 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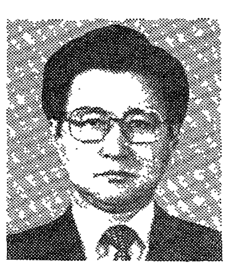
교과모임연합은 외세와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가 교육내용에 관철되어오는 핵심적인 고리도서의 국정·검인정제도를 깨뜨리고 교육내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있다. 또한 교육내용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대학입시를 비롯한 각종시험의 국가독점을 배제시키고 시험·평가방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홍진관
<국어교사 모임총무>

달하나 千江에

利他行

崔 鎔 裁
<문과대교수·응용언어>



자리이타(自利利他) 가운데서 대승적인 이타(利他)를 생각해 본다. 「이타」란 본디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이롭게하는 것이다. 이는 석가 세존의 자비(慈悲)와 직결되는 것이요. 공자의 인(仁)과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가장 높고 보배로운 덕목(德目)이다.

자비는「중생에게 낙(樂)을 주고, 고(苦)를 없애주는 일」이라는 사전적인 의미 밖에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일이라는 통속적 의미가 있다. 이것은 공자가 말하는 어짐·착함·박애(博愛)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또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예수의 사랑과도 같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순수한 우리말 낱말로 표현하면「사랑」일 것이다.

문제는 이런 원론적인 정의에 있지않고 그 실천(行)에 있다. 일반적으로 볼때 우리 모두는 유교적 전통속에 살고 있고, 불교도와 기독교도를 합하면 그수가 전체 인구에 육박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모두가 유교이건 불교이건 기독교이건 그 최고덕목을 지켜 실천한다면 바로 이 땅에 낙원이 이루어지리라는 궤변(?)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를 실망시킨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랑의 실천이 없거나 희귀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한 이유 또한 간단하다. 사랑이 없기때문이다.

그럼 사랑이 왜 없는가? 이에 대한 답 또한 간단하다.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랑은 관념적으로 배워진다기 보다는 실천적으로 체험을 통하여 습득되는 것이다.

사랑의 싹은 갓태어난 어린이가 양육되면서 어버이에게서 받는 사랑 속에서 움튼다. 점점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위의 세계와 상호교섭하는 가운데 사랑을 키워 나간다. 사실 사랑의 출발은 소승적 자리(自利)에 있다.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허영이거나 만용일 뿐이다. 자기를 끔직이 사랑하기에 남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희생일 수가 있다.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필요가 있다. 사랑의 결핍은 흔히 고독, 실망, 좌절 등으로 표현된다. 고독한 사람에게 동무가 되어 주고, 실망한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며, 좌절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바로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는다.

사랑의 실천이 결코 어렵고 거창한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흔히 사랑은 정서의 일종이라고한다. 그러나 이 정서가 때로는 신념이 될수도 있다는데 인생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 사랑의 선행조건에는 용서가 있다. 용서는 의지적 행위이다. 이 용서 위에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면 사랑은 의지의 소산이라고 할수있다.

무궁세(無窮世)에 중생제도와 인간구원을 이루고 지상낙원을 건설하려는 높은 이상이 바로 사랑이라는 덕목에 달려 있음이 인간의지의 결정을 요구한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모든 곳에서 사랑의 결핍이나 부재를 본다. 조금 참고 용서하며 견디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또한 적극적으로는 긍정적 반응과 행위로써 상대방을 돕고 이끌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부정과 시기와 갈등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손잡고 서로의 등을 두드려 줄때 우리는 바로 낙원 속에살수 있다. 그리고 후세에게 사랑을 가르칠 수 있다.

편집과정의 미숙함 보완돼야

——학내 간행물 발간 실태조사

지난 87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각 단과대학·학과의 신문·학술지·문예지·학회지 간행사업이, 89년에 들어서는 총학생회 편집부에서 편집주체 연석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단과대신문의 위상과 역할에 관해 총학생회 편집부장 김종찬(국문·4)군은『단과대신문은 학생회 사업의 공개성을 실현해 나가는 장으로써 그 의의가 있고, 더불어 단과대 성원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각 단대의 특수성을 살려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과대 신문의 위상과 역할에 못미치는 몇가지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단대별 특수성 제대로 살려내지 못해

첫째로는 아직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각 학과 편집위원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의 민주성을 제대로 실현해내지 못하고있다.

둘째로는 각 단과대, 학과편집부가 지속적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한채 단절되어 축적물이 적다는것도 개선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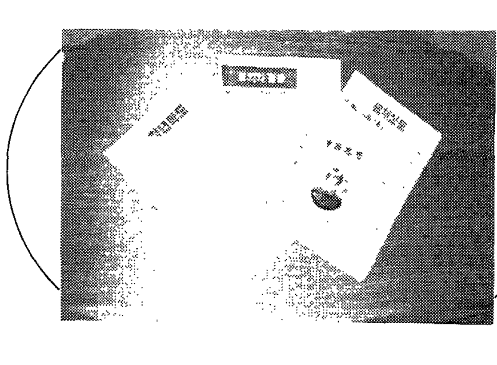
세째로는 대부분의 단과대에서 아직 경험상의 미숙으로 각 단대별 특수성을 제대로 기획해 기사화해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면 어느정도 모범적인 경우라 할수 있는 몇개 단대 신문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법과대학의 경우에는 지난 3월에「정의와 평등」지 3호가 발간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법대 발전위」에 대해 제언 법대발전을 위한 교수님과의 좌담이 실려 있어, 법과대 특수사안을 자체적으로 홍보, 해결해 나아가는 모색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불교대의 불대신문은 사설에서「현 정권은 불교탄압을 즉각 중지하라」는 내용이 실려 불교대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불교대의 경우에는「불대신문」편집에 불교대에 속한 각과 편집위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민주성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학술지의 경우에는 올해로 22집을 발간할 예정인 불교대 학술지「동국사상」이 그 내용상에 있어「조국통일운동속에서 바라본 북한불교 소고」,「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불교」등이 실려 있어, 80여년 동안 보수적인 학풍을 견지해 오던 불교대가, 이를혁신하고 불교를 실천적 종교로 보듬아 내려는 맹아가엿보여 그 의의성을 살리고있다.

이밖에도 다수의 단과대·학과에서 신문, 학술지, 문예지등을 간행하고 있는 실태이다.

특히 본교에서 편집, 간행사업이 가장 활발한 국문과의 경우에는 오는 6월경에 학년신문까지 간행될 예정이며, 국문과 학회지는 물론 문예지「사화집」도 발간하고있다.

반면에 사회과학대와 야간강좌에서는 성원들의 절실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와 편집, 간행사업을 담당할 사람이 마땅치 않은 관계로 간행물이 전무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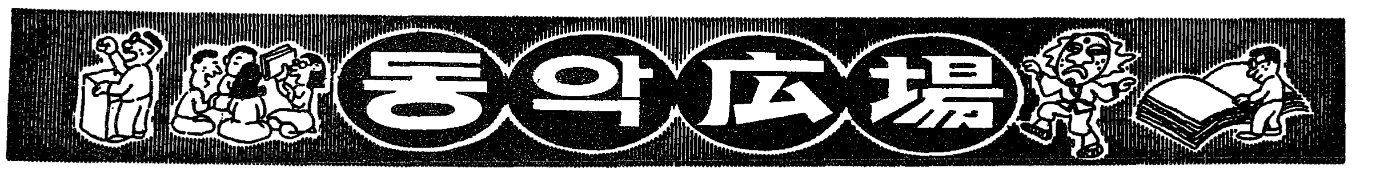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학내간행물이 각 단과대와 학과의 특수성을 살리고 있는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수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되었듯이 일부 단과대가 신문의 편집상에 있어 그 단대에 속한 각과의 편집위원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은 사업의 민주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회가 사업의 공개성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신문의 예산지출에 관한 내역을 공개하는것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각 단과대·학과에서 간행물이 발간됨에있어, 민주적인 편집과정과 더불어 각 단대·과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히 수렴하고, 학생회 사업의 공개의 장으로서 면모를 세울때 일반학우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동시에 그 의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것이다.

<이진형記者>



동악広場

문화단신

「허공에…」공연

극단「아벨」은 신촌 무대개관 1주년 기념공연으로「허공에 매달린 사나이」를 6월3일부터 30일까지 4시30분, 7시30분에 신촌무대(신촌로터리 서강대쪽)에서 공연한다.

이 작품은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소외되고 누락된 세인물을 통해 산업사회의 그늘을 해부하고 현대의 문제적 삶의 의미를 반추해 보려는 작품이며 나아가 개인의 삶과 전체사회의 관계속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갈등과 의미찾기 속에서 고민하는 세대들의 토론의 장이되는 계기를 마련하려 하고있다. (문의 712~3889)

「9번…」공연

극단世美는 마룩사·밀랄타작 김은희연출「9번이라는사나이」를 다음달1일부터 30일까지 저녁4시30분, 7시30분 동숭동 에르나니소극장에서 공연한다.

창고극장인 극단「자유」에서 일했고 최근 미국연수에서 돌아온 젊은 여류연출가의 귀국 첫무대이며 출연에 최재영 김순옥 윤혜원 등이다.

「내일…」 공연

극단「미래」는 알프레드 마샬원작 이상화각색 홍성일연출의「내일이면 늦으리」를 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 오후4시30분, 7시30분(토요일은 12시, 2시)에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공연한다.

이번작품은 청소년 성교육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강승원, 이하영, 이인희등이 출연한다.

「태평천하」공연

국립극단은 금년도 두번째 무대로「태평천하」를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평일·토요일 오후7시30분에 일요일 오후4시 국립극장소극장에서 공연한다.

「태평천하」는 소설로 쓰여졌지만 소설원본 그대로를 방송한 적이 있을정도로 극적 성격을 내재한 작품으로서 4대에 걸친 연대기를 서술, 세대간의 갈등은 물론 한말에서 1930년에 이르기까지의 사회변천사를 보여주고있다.

서예청년작가전

제2회 한국서예청년작가전이 다음달 15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열린다.

지난2월 신춘휘호대회를통해 선정된 한문서예 16명, 한글서예 6명, 사군자 4명, 전각4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국 연극제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한국연극협회 공동주최로 제7회 전국연극제가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6일동안 포항시민회관에서 전국시·도14개 대표극단의 참가로 안개섬, 비목, 사람의 아들등 각 극단이 하루에 오후5시, 8시 2회의 공연을 갖는다.

게시판

화제영화 감상회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현대영화연구소에서는 제5회 80년대 화제영화감상회를 지난 29일부터 오는 4일까지 동국관(L101)에서 연다.

이번 감상회에서는 남아프카의 인종차별문제를 비판한 영화 크라이 프리덤을 비롯 사회성이 강한 작품 5편이 공개된다.

(문의 736—3010)

외국어 회화특강

외국어교육원에서는 외국어 회화특강을 지난 26일에서다음달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영어, 일어, 독어를 강의하고 다음달 2일까지 접수를 하며 선착순 30名을 대상으로 한다.

유럽영화제

중앙대 영화학과에서는 창설 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흑석동 제1캠퍼스 시청각센터에서「유럽영화제」를 개최한다. (문의 233—4521~7)

만화운동강연회

홍익대학교 푸른그림터에서는 우리시대의 삶과 만화라는 제목으로 만화영화상영및 강연회를 오는1일 오후1시 홍대 와우관 세미나실에서 연다.

1부 강연회에서는 문화운동에 있어서 만화운동의 현황과 방향에대해 보통고릴라의 작가 주완수씨가 강의하고 2부에서는 초청만화가 주완수, 이희재, 반쪽이, 탁영호씨가 토론을 벌이며 3부만화영화상영에서는 반쪽이 만화영화, 중국만화영화가 상영된다.

정치학교 개설

통일민주당 중앙청년위원회에서는 청년정치지도자의 육성을 위한「민주청년 정치학교」를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 4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3시에서 7시까지 통일민주당 12층 대회의실에서 개설한다.

이번 정치학교에서는 이기택(연세대)교수의 북방정책과 한반도통일정책, 노무현국회의원의 한국사회운동의 이론과 현황등을 강의한다.

수강료는 2만원이고 오는 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문의717—8890)

문예작품 모집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에서는 89년도 대한민국 문학상 신인부문 번역상 후보작품을 모집한다.

모집대상 작품은 우리문학작품을 영·불·독어로 신역한 미발표 번역물로 시는 10편이상, 소설은 단편1편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문의 762—6332)

시민 강좌

한국에스페란토협회(회장 : 장총식)에서는 에스페란토의 보급을 위한 시민강좌를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신문로 신문빌딩에서 연다°

(문의 734—6222, 737—6694)

테니스대회

경주캠퍼스 **교직원테니스회**는「제1차 교직원 테니스대회」를 다음달6일 오전10시부터 교수·교직원 30여명이 참가하여 복식A조, B조로나눠 테니스장에서 연다.

학회지원고 모집

경주캠퍼스 **경영학회**에서는 학회지 발간을 위한 원고모집을 오는 6월20일까지 과학생들을 대상으로 시, 수필, 꽁트등 각분야에 걸쳐 모집한다.

동아리활동

초청 강연회

구퉁도가에서는「얼렁뚱땅 삶! 천방지축을 뒤흔드는 天氣의 힘」이란 주제의 초청강연회를 다음달 7일 오후 3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연다.

이번 강연회는 안종선강사를 모시고 현대를 사는 대학인의 주체적인 삶을 재조명한다.

정회원 연수회

유스호스텔에서는 다음달 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간「정회원 연수회」를 갖는다.

이번 연수회는 신입회원들의 극기훈련과 정신적훈련을 통해 정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KUSA 체육대회

KUSA에서는 선·후배체육대회를 다음달 25일 졸업한 선배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관에서 갖는다.

올해로 27기를 맞는 KUSA는 매년 이행사를 통해 선후배간의 친선을 도모한다.

정기 음악감상회

고전음악감상회에서는 창립기념으로「제1회 정기 음악감상회」를 오늘(31일) 4시 덕수궁 석조전 르네상스에서 갖는다.

이번 감상회에는「스코틀랜드 환상곡」등을 감상할 수 있다.

아리랑합창제

불교합창단에서는 아리랑축제의 일환으로「아리랑 합창제 공연」을 다음달 10일 오후5시 경희궁터에서 단원35명이 참가해「경복궁타령」「울산아가씨」,「아리랑」등을 공연한다.

10돐 기념행사

경주캠퍼스 **동국음악회**는10돐을 맞아 다음달 3일 오후7시부터 4일 오후5시까지 학생회관을 비롯 교내일원에서 기념행사를 가진후 각종게임과 체육대회를 가진다.

아르바이트

자료 조사 작업

서울캠퍼스 **여학생감실**에서는 여성의 유망직종개발 및 기존자료의 수정, 보완작업을 실시할 남녀 아르바이트생을 다음달 20일에 모집한다.

기존자료 보완작업은 직종당 3만원이며 신규직종 조사작업에는 6만원이 지급된다. 희망자는 다음달 20일 오후4시 여학생감실로.

페인트 작업보조

F·R·D산업(株)에서는 오는 7월30일까지 유람선 페인트 작업보조를 수행할 휴학생남자 20명을 모집한다. 근무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보수는 주간에 시간당 1천백원, 야간에 시간당 1천5백원, 휴일에는 주간수당에 5천원이 지급된다. 이력서(사진2매) 지참.

동악 기자석

건전한 게시판 문화 조성하자

상쾌한 아침공기를 자시며 캠퍼스를 오르다보면 교문을 들어서기전 부터 시야에 들어오는 어지러운 홍보물들을 보게된다.

후문으로 올라오는 가장자리 벽면에는 각동아리나 단과대의 게시물들과 외부의 영화·연극포스터가 현란하게 도배되어 있고 중문으로 들어오면서도 교문이나 심지어는 바닥에까지 자보용지들이 비닐 속에 안치(?)되어있다.

또한 혜화관 벽면에 빼곡하게 들어차있는 동아리 게시물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수십장씩 지저분하게 붙어있어 내용들을 제대로 읽을수조차 없다. 그러나 정작 게시판이라고 설치된 곳에는 찢겨진 게시물이 몇조각 걸려 있을뿐 텅비어 있기일쑤이다.

동국인이라면 한번쯤은 학내외의 오염된 환경에 대해 개선과 정돈의 절실함을 느꼈으리라. 그러나 누구도 솔선수범하여 건전한 게시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음을 반성해야 할것이다.

우리의 생활공간 스스로 가꿔나가야 하지 않을까.

김미영<이과대 수학과>

"통일의 불꽃으로 「대동」을 노래"

목멱 대동제

주제별 일정 따른 내용성 담보엔 미흡

대중성 확보위한 행사 기획 눈길끌어

개교83주년기념 「목멱대동제」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는 의의」를 대주제로 열려 5월의 투쟁주간동안 학생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난26일 대동놀이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동제는 「가자! 자주의 깃발들고, 오라! 통일

取材落穗

의 불꽃되어, 노래하자! 해방조국의 새날을」이란 기치아래 주제별 일정을 설정하고, 이에따라 학원자주, 평양축전, 노학연대, 민족대단결의 날로 각각 행사를 꾸몄다.

예년에 비해 대체적으로 참가학생수가 증가하는 등 발전적인 모습들을 보였으나 축제준비위원장인 총학생회장 김성규(사학4)군이 「이철규열사 진상규명및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며 명동성당단식농성 참여로 자리를 비워 대표없는 대동제를 마련 해야했으며 더불어 계속적으로 지적돼온 대중성 있는 행사프로그램의 부재로 많은 학생들의 발길을 잡지 못했고 주점역시 무허가까지 난립해 주체의식을 상실한 학생들의 모습을 반영, 대동제의 이미지에 큰 손실을 끼쳤다.

반면에 지난25일열린 「학생·전경 체육대회」등은학생들과 전경들간의 대동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크게 호평을 받기도했다.

전야제 각 단과대 풍물패들이 오후6시부터 만해광장에 모여 경연대회를 갖고 대동제의 막을 올렸으나학생들의 불참으로 한산한분위기로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학원자주의 날 첫째날인 23일 오후3시 李智冠총장, 黃彰經이사장을 비롯 학생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식을 가졌으나 소수참석으로 조촐한 느낌을 지울수 없었으며, 「모의총장선거」와 「교과과정 전면개편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려 학자투에 대한 성격은 부각시켰지만 진행미숙, 준비부족등의 문제점도 노출.

평양축전의 날 둘째날인 24일은 「반제의 굳센 어깨걸고 가자 축전의 도시 평양으로」란 기치아래 「D·U·B·S방송제」 「한·미행정협정 심포지엄」등이 열렸으나 「평양축전관련 강연회」 「집체극 꽃파는 처녀」 「신영복씨 초청강연회」등의 계획이 취소돼 이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학생대중의 참여를 이끌지 못했다는 비판이 횡횡.

노학연대의 날 「벽을깨고 울려퍼지는노동해방의 벅찬 북소리여!」를 기치로 시작한 25일은 오전부터 계속된 「학생·전경 체육대회」가 무엇보다도 눈길을 끌었으며 화합의장 마련이라는 데에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는 評.

또한 오후5시부터 용역원 아저씨, 아주머니들을위한 위안의 밤을 마련해 아직까지 식지않은 동악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보는이들을 흐뭇하게 해.

민족대단결의 날 마지막날인 26일첫 행사인 남사당초청공연부터 학생들의 호응을 얻어 연장공연까지 실시하는 모습을 보여 동참의 장을 마련.

이어 폐막제에서는 길놀이를 필두로 해외여행의 상품이 관심을 모은 「퀴즈놀이 해방동국」이 성황리에 열렸으며, 「민족해방, 민족통일」을 주제로한 대동놀이와 통일불꽃놀이, 횃불대행진등으로 대동의 장을 마련해 대단결의 모습을 비췄으나, 동국문학회에서 「5·18광주항쟁시」를 40여분동안이나 낭송해 1천여명의 참석학생중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 5백여 학생들이 자리를 떠 반쪽뿐인 대동제로 막을 내린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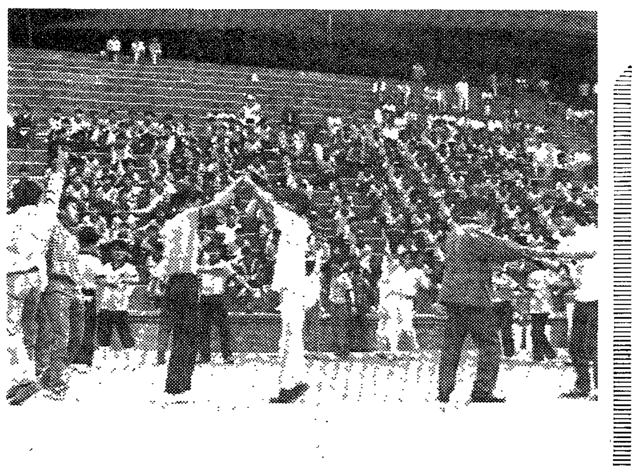
이로인해 계획된 평화적 가두행진도 별 성과없이 끝나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속출.

× × ×

이번 대동제는 주제별일정아래 예년에 비해 성실한 준비와 진행태도를 보였으나 대동제참여 학생들의 의식결여, 무허가주점난립, 사치성놀이 만연등은 끝내 극복되지 못했다.

한편 크게 호평받은 「전경·학생 체육대회」를 통한 관계 정립, 「노·학연대 한마당」등의 연대는 앞으로의 투쟁사업에서도 지속돼야하며, 동참의식결여등의 오류는 계속되는 행사와 토론속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合同取材班>



◇지난25일 열린 「학생―전경체육대회」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다는 평을 받고있다.

가야碑 또 발견

金相鉉교수팀이 경남 합천서

경주캠퍼스 학술조사단 金相鉉(한국고대사) 교수가 지난23일 경남합천군에서 가야비로 추정되는 또다른 古碑를 발견했다.

이 古碑는 지난4일 발견된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창마부락에서 약1㎞ 떨어진 시냇가에서 발견됐는데 길이4백㎝, 너비3백20㎝, 두께60㎝ 규모의 장방형 巨石이다.

발견된 고비는 마멸이 심해 문자판독이 어려워 현재 X선촬영등 정밀검사중이다.

법과대 개편요구

경주 총장실점거

경주캠퍼스 법학과 학생50여명은 「법과대학 개편및 고시원 활성화」등을 요구하며 지난 23일부터 총장실(경주)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법학과 학생들은 지난 22일 「법학과 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 23일 정오 진흥관(B302)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것을 결의, 이날 오후1시30분부터 金炯秀부총장과 1차 면담을 가졌으나 별 진전이 없자 즉시 부총장실을 점거했다.

이어 학생들은 오후5시부터 법정대학장실에서 朴準鶴법정대학장을 비롯, 법학과 교수7명전원과 면담을 가져 법과대학 분리 건의서 작성에 의견을 모았으나 학교측이 법학과 발전에 관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자 법정대학장실로 농성 장소를 옮겼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金炯秀부총장, 金喜午학생처장, 朴準鶴법정대학장, 權度爀교무처장과 면담을 부총장실에서가져 법과대 분리의 필요성을 상호인식, 이에 학생측이 서면확답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29일 李知冠총장과 면담후 서면으로 확답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주 동연회장에 이상화君

경주 캠퍼스 제3대 동아리 연합회 회장에 이상화(회계3)군이 지난25일 당선됐다.

지난 25일 오후5시 도서관시청각실(4층)에서 1백72명의 동아리 회원중 96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찬·반투표에서 찬성69, 반대25표 기권2표로 당선됐다.

신임회장이군은 공약사항으로△1개동아리 1개룸 확보△전시및 회의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문화동아리 자치연습공간과 시설확충△각동아리 비품지급△행사시 교비·차량지원, 관계직원의 방문△지도교수 지도비지급내용 공개 등을 제시했다.

경주복지장학금 총수혜자 72명

경주캠퍼스 「복지장학금」이 총수혜자 72명에게 각10만원씩 지난15일부터 장학과에서 지급되었다.

이번 장학금의 재원은 캠퍼스 구내의 휴게실·식당·사진관·복사실등의 임대업체로부터 받은 임대료 1천1백76만원중 7백20만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구내 자판기수입금 일부와 함께 2학기에 과인원에 비례해 수혜자수를 정한뒤 지도교수등의 추천을 받아 학과장이 최종결정, 장학과에 통보하여 지급된다.

공동체의식 극대화 절실하다

주인의식으로 함께하는 선거문화 아쉬워

신임총학 6개월 한계극복-학자투과제 완수를

경주캠퍼스 제6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를 위한 유세가 3차례, 야간 1차례등 총4차례의 열띤 유세를 모두 마치고 이제 온방골을 이끌 참주역의 선택의 여지만 남겨두고있다.

지난4월 대의원총회를 거쳐 개정된 학생회칙에 따라 임기를 6개월로 오는9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로 개정한후 갖는 선거라 유세의 호응이 상당히 침체한 가운데 나름대로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타 후보의 공약에 이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없앨수 없었다.

총4차례의 유세가 진행되었지만 그때마다 유권자들의 참여는 3백여명을 넘지못하는 지지를 받아 앞으로 선거에 유세, 공약을보고 동국의 장래를 맡길수있는 후보를 선출하는게 아니라 학연, 지면에의해 당락의 여부가 결정날것같아 보다 냉철한 판단과 책임있는 한표가 필요하다.

또한, 타후보의 모략, 악성루머등을 유포하는행위도 여전히 지성인의 선거에 남아있어 사회의 선거와 다름이 없었다.

팀모두에게 「프락치사주설」 「학교당국과 연관」 「기관후원설」등의 루머를 가지고 있는등 후보자들의 확실한 신념부족과 자아관의 미정립으로 여론에 편승하는 유세를 펼쳤는가하면 학교내 전건물벽이 공보판이 되는등 선관위자체의 통제가 전혀 없어 누가 많이 붙이고 금전을 쓰는가에 대해 많은 신경이 쓰일정도로 난무했다.

선거의 분위기면에서는 전체 유권자들의 침체된 분위기속에 진행된 반면 선거운동원들의 열렬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대조를 보이기도했다.

한편, 지난22일 정오 녹야원에서 열린 1차유세에서 세후보자모두가 대동단결, 학생들과 함께하는 총학건설등의 사업에는 일치했는데 기호1번 유재중 장성윤조는 ▲과학생회의 강화와 사업의 공개▲장학금 수혜자폭의 확대 ▲취업대책 마련 ▲신설학과 지원확충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학교, 학생자치기구의 예산공개와 학자투의 완수에 앞장설것』이라고 말했다.

기호2번 이종현·한광태조는 ▲부총장 직선제 ▲대·경총련의 주체 ▲악법철폐투쟁의 전개등을 공약으로 『경주캠퍼스 정치투쟁, 학자투등 운동의 질·양적향상에 주력할것』이라고 말했다.

기호3번 이하형·최경식조는 『2캠퍼스 총련을 건설하여 기반 문교정책을 혁파하고 면학풍토 조성에 노력할것』을 밝히며 ▲전교생대표자 협의회구성 ▲철저한 민주적 총학건설 ▲교과과정의 전면개편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 3차유세에서도 1차와 변함없는 학생들의 무관심속에 유세가 치뤄졌고 운동원끼리 반목과 질시의 극대화 타후보의 비난등은 대학선거풍토를 타락시키는 요인이 됐다.

▲ 현재 경주캠퍼스의 고립적이고 지역적인 퇴폐성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지역총학생회 연합에 가입해 보다 폭넓은 시각을 가지며 문교부의 기만적분교행정을 타파하고 종속적 2캠퍼스에서 독립, 과감한 재단, 학교의 지원을 유도할수있는 2캠총련의 활성화가 선행돼야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캠퍼스와의 깊은 연대와 유대속에 고립을 타파하고 학자투의 활성화로 경주자치권의 확보, 행정의이원화로의 변모를 꾀해야할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5월선거에서 7대부터의 11월선거체제로 바뀌었기에 올바른 선거체제의 확립, 인수인계의 미비를 보완해야할것이며 사회선거와는 질적으로 향상된대학인, 지성인들의 고양된 선거풍토의 조성에 학생모두가 경주해야 할것이다.

아울러, 지나친 무관심과 외면으로 인한 모든 결과의 책임은 동국구성원 전체에게 귀결되므로 온방골의 발전에 크나큰 오점이되고 총학의 사업 수행에 분열, 질곡을 초래한다는 것을 모두는 명심해야 할것이다.

< 取材部 >

경주 금장장학금 총8백만원 적립

경주캠퍼스 10주년기념 금장장학금이 제3차로 90만원이 장학과로 접수됐다.

이번 3차기탁금은 金炯秀부총장 30만원, 金喜午학생처장 20만원, 李根鎬 한방병원 관리과장 10만원등 총10명이며 현재 총 적립 기금액은 8백4만8천4백90원이다.

김동선회장 구속돼

지난 26일 합수부서 연행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 김동선(중문4)군과 사회부장 강양운(의학1)군이 지난26일 오후2시 경주 톨게이트에서 공안합수부소속경찰에의해연행, 지난29일 구속됐다.

金군과 姜군은 지난 26일 오후2시10분 대구 계명대에서 열리는 「대구경북지역 총학생연합 발대식」참가차 대구로 향하던중 경주 톨게이트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 지난29일 구속되어 오는2일 내남교도소로 송치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28일 오후8시 총학 사무실에서 운영회의를 열어 이재근(국사4)君을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이에 따른 비상학생총회가 지난29일 정오에 학생 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야원에서 열려 각과, 단대별로 의견을 최대한 수렴, 내달2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시가 평화대행진을 벌렸다.

회전무대

온방서당 8조법금학과 유생들 "이젠 더이상 눈치밥 싫다"

우리는 하나다

○…나흘간의 대동제가 대동제아닌 대동제로 막을내려 아쉬움이 남는데。그나마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던 프로그램이 있어。

내용인즉, 축제 사흘째인 지난 25일 「학생·전경 체육대회」가 대운동장에서 열렸던 것이 그것。

학생·전경이 어우러져「하나」로 노는 것도 좋았지만 행사가 끝난 뒤 운동장을 말끔히 정리한 전경아저씨들을 보니 괜히 뿌듯해。놀때는 「하나」청소는 「오리발」인 학생들을 보며 本 회전무대子도 낯이 뜨거워졌는데 같이청소를 하던 ㄱ과 ㅈ군 왈, 『학생들이여, 동참하라! 청소대동제에』라고 호소하기도。

오공이와 육공이의 우정

○…세간에는 오공이와 육공이의 변함없는 우정이 보는 이들을 감동시키고있다는데…

최근 死法部(?)는 5共비리 관련자들을기기묘묘한 이유를 들어 석방시키는 관용을베풀고 있다는것。

5共부활음모를 획책하는 반민주 무리들을 민중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것임을명심해야 할텐데…。

연이은「훈장어른」방 점거

○…온방서당 「8조법금」학과 유생들이 더이상 눈치밥을 못 먹겠다며 훈장어른방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는데…。

이는 고시원 운영에있어 가장 기본적인 철야개방및식사·숙박문제에 조금도 관심을 주지 않고서항상큰 소리만 쳐온 서당측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것이라는것。

서당측의 무관심에 대해 농성중이던 某학형 이르길 『동국서당발전, 학업환경개선을 위해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수는 없을 것이외다。』

환경과 판단

○…유세가 한창인 온방골에 유세장 풍경이 가관이라…。

유세중에는 보다 안락한 자리확보를 위해 유인물을 열심히 구걸하다가도 유세가 끝난 후에는 유인물과 결별하는 학형이 부지기수여서 유인물만 분분히 날아다녀…。

벽과 땅바닥을 구별않고 온통도배하는 철면피 후보도 있어 전벽장연(전국벽지장사연합)들 입에 거미줄칠까 두려워…。

전캠퍼스가 쓰레기장화될까 염려스러운 本회전무대子 한마디, 『너저분한환경 속에서 깔끔한 판단이 가능할지요?』

뙤약볕에 자란 고추가 매운 법입니다.

放學은 캠퍼스에서 채워질 수 없는 삶의 경험들을 다양하고 깊게 맛볼 수 있는 熟成의 시간입니다.

大學人에게 있어 방학은 책이 없는, 無言의 강의시간과도 같습니다.
학문이라는 제한된 知的공간에서 해방되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풍물들을 만날 수 있는 대학인만의 특권, 放學.

혼자 걷는 시골길과 낯선 旅路의 정거장에서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의 현장에서, 그리고 독서와 사색 속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미처 몰랐고 보지 못했던 다양한 삶의 현실들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이 다할때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캠퍼스에 돌아올 것입니다.

한여름볕을 듬뿍 받으며 자란 고추가 더 맵고 알차듯 이 여름, 이념과 갈등의 짐을 잠시벗고 불타는 젊음의 체험을 만끽해봅시다.

포항제철은 다음世代의 행복과 다음世紀의 번영을 약속하는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LTD.

영화평

"역사의진실 조명한 민족영화"

——루이스 푸엔조의 「오피셜 스토리」

군부독재와 싸우다 죽어간 민중의 삶 다뤄

「오피셜 스토리」는 수작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화가 정곡을 찌르면서도 감동적이기 때문이다. 즉, 주제에 대한 감응력은 강렬하면서도 절제되어 극 전편을 관통하고 있었고 인물들의 정서와 감정은 명백하고 열렬하면서도 잔잔하게 연출되었으며 구성은 치밀했고, 대사는 압축되어 있으면서 감각적이었고, 사진전개는 우연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하여 주는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세계에 대한, (영화) 예술에 대한 치열한 리얼리즘적 사고이다.

전형적인 중산층의 주부이며 고등학교 역사교사인 알리시아 (놀마 아레안드로) 가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귀여운 딸 가비의 출생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데서 이 영화는 시작된다. 그녀의 진실추구에 대한 열의는 그녀를 문제의식에 눈뜨게 하고, 마침내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자행된 군부독재정권의 가공할 만행—이에 대한 민중들의 투쟁에 대한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

이 영화는 이러한 시대적 본질과 사회적 특질에 대한 아름다운 투쟁을 그리고 있다. 총소리 한방 들리지않고 돌 하나 날아가지 않지만 이 영화는 고귀한 그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바로 사상정서를 나타내어 줄 형상화와 전형화에 성공하고 있다.

형상화 (형상성) 는 현실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얼마나 철저히 보장하는가에 있고 그러한 형상이 의미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전형적일 필요를 갖는다.

그리고 전형의 근본적 의의는 대표성에 있지 않고, 일정한 형상을 통하여 사회생활의 본질적 법칙을 깊이 있게 반영하는 데 있는 것이다.

「오피셜 스토리」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조그마한 사건을 통하여 아르헨티나의 역사의 진실과 제3세계 민중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그 모든 압제의 사슬을 끊고 나아가자고 제의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 엥겔스의 예술에 대한 언급은 의미가있다『…리얼리즘이란 내 생각에 의하면 디테일의 성실성 외에도 전형적인 환경에서 전형적인 성격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물론 여기서의 「재현」이란 자연주의에서 말하는 그대로의 「묘사」가 아니다.

이렇듯 (영화) 예술의 위력은 전형적인 생활을 폭넓게 그리면서, 높은 사상이 안정되고 고상한 정서로 안받침되는데서 생겨난다.

나는 팜플렛을 보면서 이 영화가 외국의 유명한 영화제들을 휩쓸었다는 큼직큼직한 활자보다도 더 눈길이끌린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영화의 개봉 첫 2주 동안 50만명이라는 유례없는 관객을 동원하여 아르헨티나 영화사상 최고의 흥행기록을수립하였다는 사실이었다.

이 사실은 나에게 일제식민지하 1926년 춘사 (春史) 나운규의 「아리랑」이 개봉되면서 우리민족에게 던졌던 파장이 얼마했었던가를 연결시켜 주었고 「오피셜 스토리」를 보면서 아르헨티나 민중들이 얼마나 서럽게 가슴 복받치며 울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하였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군부독재에 의해 희생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굴절된 역사와 함께 1980년 지구의 반대편 「광주」의 모습도 함께 볼수 있을 것이다.

매우 훌륭한 영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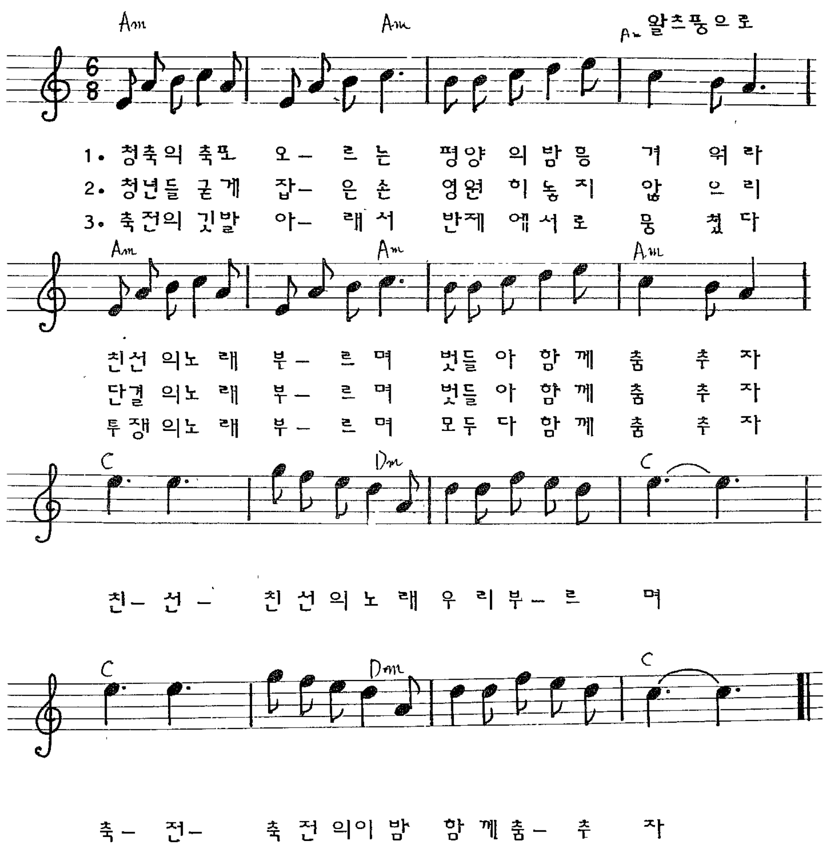
루이스 푸엔조는 말한다.

『우리는 군복을 입고 군림했던 막강한 지배자들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싸우던, 싸우다 죽어간, 싸우다 실종된 사람들과, 말없이 그들의 뒤를 밀어주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 이 한 작품을 제작한 것이다』

기억할 수 없는 나라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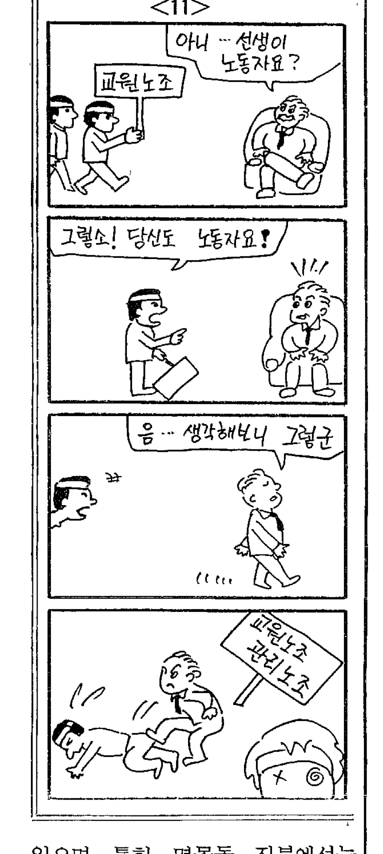
김 창 헌
<동문·불교학과88년卒>

축전의 노래


Am
Am
Am 왈츠풍으로
1. 청축의 축포 오— 르는 평양 의 밤 을 겨 워 라
2. 청년들 굳게 잡— 은 손 영원 히 놓 지 않 으 리
3. 축전의 깃발 아— 래 서 반제 에 서 로 뭉 쳤 다
Am
Am
Am
친선 의 노 래 부— 르 며 벗들 아 함 께 춤 추 자
단결 의 노 래 부— 르 며 벗들 아 함 께 춤 추 자
투쟁 의 노 래 부— 르 며 모두 다 함 께 춤 추 자
C
Dm
C
친— 선— 친 선 의 노 래 우 리 부— 르 며
C
Dm
C
축— 전— 축 전 의 이 밤 함 께 춤— 추 자

말뚝이!

김 성 일
<11>



"대중 권익위한 계급투쟁 돼야"

——「지역주민운동」의 현황

6월항쟁이후 민족민주운동으로 승화

토론·공청회등 다양한 활동전개

지난해 올림픽을 전후하여 나타난 사당·상계 철거민들의 대정부 투쟁은, 해방이후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기층 빈민대중의 수동적 모습이, 그들 지역주민의 단결된 힘으로 사회 변혁을위한 능동적 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피부로 느끼게 했다.

광주민중항쟁유적지순례, 4·19혁명계승대회등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주민운동은 지역주민들의 사상적·이론적 통일을 유도, 민주화된 국가 건설과 민족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지역주민운동이 민족민주운동의 한 형태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87년 6월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폭발적인 대중투쟁을 경험하고 부터이다. 이는 기존의 운동이 미조직적·자연발생적 대중투쟁의 한계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기존의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부터 새로운 운동의 형태로 재출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현재 서울에는 총22개 구가 존재하며 이중 17개의 구가 지역주민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동부·서부·남부 북부의 4개 지부로 통합·운영되고 있다.

이들을 총괄하는 단체로는 「서울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민주쟁취 국민운동 서울본부」「서울민중연합」, 「민주화운동청년연합」등 4개의 단체가 있다.

「지역주민운동의 개념」을 서울민통련 허활석 간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역주민운동은 첫째, 지역적 공통성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각계각층의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며 이들을 의식·조직화하는 운동입니다.

둘째는 신식민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도시지역의 제문제 (주택난, 도시공해, 교통난, 자녀교육 교육환경, 의료환경등) 에대해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 실현을위한 주민투쟁을 민족민주운동으로 묶어 세우는 조직적 운동이며 셋째는 도시지역의 주민문제가 신식민지 한국사회 모순구조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이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가 성취될때만이 이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운동은 각계각층 주민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이사회의 민주화·자주화를 성취하기위한 정치투쟁일 수 있습니다.

한편 지구별 사업내용은 각 지구별로 약간의 특수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생활·의식수준의 차이로 파악할 수있다.』 영동같은 부유층 주민이 대부분인 지역에는 자치단체가 없는 실정이고, 구로지부와 같은 노동자·빈민 중심의 지역은 주로 노동생존권 쟁취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계급투쟁이 선차적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로지부 조직부에 있는 정수근씨는『지역주민운동은 대중적인 권익을 위한 계급투쟁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것이 통·전의 관점에서 조직적 연대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역주민운동의 활동을 살펴보면 각 지구별로 지역신문발행, 독서토론회, 시사토론회, 강연회, 공청회, 설문조사, 대동제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중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은 북부지구 (도봉·노원·성북·동대문·중랑) 로 대동제인 「오월단오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면목동 지부에서는 주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교실 (공부방), 지역문고 (푸른소나무) 가 활성화 되어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운동의 활성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한계가 없는바는 아니다. 이에관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생활수준및 정치의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권익수호의 부분이 해결되기 어려우며, 주민 개개인이 실생활에 접하며 자기 주변에 대한 모순구조들을 혁파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이러한 한계성 극복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주민대상 교육·홍보활동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대중역량을 키워가는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이제 지역주민운동은 막 떠오르는 별과같은 희망의 내일을 향해 활성화되고있다.

<이만섭記者>

메아리

▲어떤 사람이학교에 입학하려 했을때 면접시험에서『자네는 왜 이 학교에 들어오려 하는가』하는 질문을 받았다. 『저는 이 학교가 좋아서 입학하고 싶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시험관은『만일 자네가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도서관이 낫지않은가? 학교란 공부하는 곳이 아닐세』라고 했다. 『그렇다면 학교는 왜 필요합니까?』라고 의아해 하며 반문하자 시험관은 대답했다. 『학교에 간다는 것은 훌륭한 사람 앞에 가는 것이지! 그것은 살아있는 교본을 대면하기 위해서 인 것일세. 학생은 위대한 선생을 지켜봄으로써 배우는 것일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다. 지금 우리네 교육실정은 어떠한가. 과연 교단이 「참교육 실천의 場」으로 제구실을 다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까. 자의든 타의든 간에 위의 물음에 회의적일수 밖에 없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둘러싸고 전교협과 문교당국과의 심한 충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문교당국은 한사코 전교조는 국가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 불법단체임을 주장하고 전교조가입 교사들에 대한 탄압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작년말

有口有言

군, 경찰, 교정,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겠다던 정부공약은 온데 간데없고 집시법이 개정되었다하나 이들에게만은 「소급의 법칙」이 적용될뿐이다. ▲한편 정부와 관제언론에서는 큼지막하게 「교육현장에 심각한 장애요소」, 「교단이 의식화교육의 장」등의 내용을 연일보도하며 교원노조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자극해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을 유도하는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었다. 노조의 과격시위장면만을 주로 보아오면서 「노조는 곧 파업」이라는 등식을 상기하는 우리네 부모님들에게 「공부 가르쳐 주는(?)」 한없이 우러러뵈는 선생님이 머리띠두르고 시위하는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교직원노조결성대회에 참가하려는 의식화교사가 있는 한 자녀들의 교육을 맡길수 없다』며 교문을 막고 등교 학생을 되돌려 보낸 학부모들의 심정에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으나 「제2의 백골단」으로 둔갑한 시도위 장학사나 교장·교감들의 작태는 우리 교육계의 모순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것으로 사뭇 가슴 방망이질 하게 한다. 바로 우리의 「선생님」들은 민주화·인간화교육 실천을 위해 할말은 해야 한다는 외침을 하고 있다. 살아있는 교본이고 싶은 것이다.

<愛>

社 告

全國 大學生 대상

제4회 東大文學賞 작품모집

東國의 문학적 傳統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韓國文壇을 主導해갈 참신한 英才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本社제정 「東大文學賞」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였읍니다. 本 「東大文學賞」이 이땅의 精神文化를 주도해갈 가장 권위있는 大學文人의 등용문으로 정착할것을 기대하며 문학에 뜻을 둔 知性人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분야

▲詩……5篇이상
▲小說…60枚이상 (2백자 원고지)
▲評論…60枚이상 (〃)

◇응모요령

▲응모자격 : 全國에 소재한 4년제대학 在學生
▲제출기간 : 1989년 9월21일부터 28일까지 접수
▲시 상 : 상장및 상금
시 부 본상 15만원 장려상 10만원
소설부 본상 20만원 장려상 15만원
평론부 본상 20만원 장려상 15만원
▲심사위원 : 本社에서 위촉하며 당선자 발표와 함께 공고
▲당선작발표 : 1989년10월18일字 본지 紙上
▲작품제출처 : 서울 중구 필동3가26번지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작품 겉봉에 「東大文學賞」응모작이라 朱書해 주십시오
※제출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989년 5월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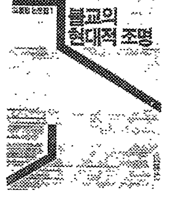
東大新聞社

새로나온 책들

문화부

불교의 현대적 조명

교수불자연합회 편저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논문집 「불교의 현대적 조명」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의 제과학과의 연결점을 찾고 참선등을 통한 해탈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현대인에게 올바른 삶의 방법을 일깨워 주고있다.

「불교사상의 본질적 이해」「한국불교 중흥의 전망과 과제」「과학의 불교적 접근」등 총5부로 나뉘어 절대주의 종교의 고찰및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역할, 불교와 한국문화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民族社刊·5천5백원>

조선공산당과 코민테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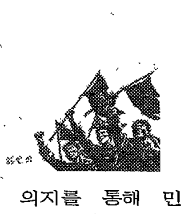
고준석 지음

1930년대 이래로 조선해방까지의 조선공산당과 코민테른의 관계를 다룬 이책은 일제시대 민족해방운동사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코민테른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30년대 동북지방의 항일 빨치산과 중국공산당의 협력및 무장투쟁 그리고 해방직후의 조공운동을 다룸으로써 운동의 연속성과 단절성에대한 총체적 시각을 확보하고 있어 근·현대 민족해방운동사와 공산주의운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공동체刊·3천2백원>

광주의 깃발

박정온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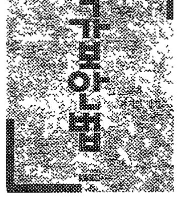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군사독재의 참혹한 탄압속에서 민주시민이 보여준 투쟁과 승리를 문학적으로승화시킨 장편 연작시집 「광주의 깃발」은 광복이후 줄곧 광주에서 詩作활동을 해온 시인의 의지를 통해 민주화를 염원하는 온 겨레의 의지를 17편의 詩에 담아내고있다.

특히 애국시민들이 죽음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간성 옹호를 위하여 어떻게 싸웠는가를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통일지향의 민족시」로 평가 받고 있다.

<인의刊·2천원>

국가보안법

한기해 지음



해방이후 일제하와 근본적으로 다를바 없는 식민지 체제하에서 미제국주의와 일제하 친일관료배, 반동지주 매판가본가의 보급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로서 반공이데올로기에 근거해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성격별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을 제시하여 국가보안법의 본질과 폐지의 당위성을 입증하고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대한 연혁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내용으로 한 문헌등의 자료도 실려있다.

<공동체 刊·3천원>

농·활

편집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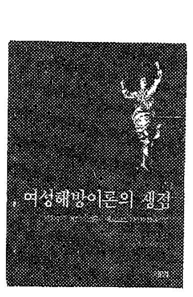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을 위한안내서로, 오늘의 농촌현실과 농민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농촌활동 방법론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계속되어온 농촌활동의 체험과 이에 대한평가를 토대로 보다 과학적인 농·활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 편집된 이책은 농촌활동에 임하는 대학생의 자세, 농촌활동의 의의, 농·활의 역사등을 이해하기위한 관련자료 목록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刊·2,500원>

여성해방 이론의 쟁점

김혜경外 옮김



「여성해방이론의 쟁점」은 70년대 후반부터 여성들이 중심이된 운동이 활성화 되면서 여성학 여부의 논쟁을 정확한 인식에 입각한 과학적 비판의 수준으로 이끌고 아울러 올바른 여성해방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그동안 논쟁의 주축이 되어왔던 사회주의 여성해방론과 맑스주의 여성해방론을 대표할 수 있는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주로 가부장제, 성별분업, 자율적 여성운동의 개념과 이론을 양자의 입장에서 설명 분석하고 있다.

<태암刊·3천8백원>

국어만화문법

서대원 만화·한갑수 감수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생각되는 문법이 대학생 이나 사회생활을하는 성인뿐 아니라 중·고등학생도 쉽게 익힐수 있도록 만화로 짜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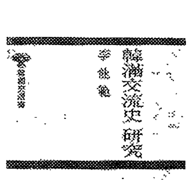
국내 최초로 만화문법으로 구성된 이책은 문장론과 품사론, 소리에 관한 법칙등 국어문법의 지식에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또한 지난 3월1일부터 시행된 『새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별책부록으로 되어있다.

<대교문화 刊·3천원>

한만교류사연구

이용범 지음



1백권 기획으로 출간되고있는 「한국사선서」의 제12권으로 일평생 한만 몽고 중심의 고대사를 연구하며 「중세동북아시아사」「고대의 만주관계」「중세 만주·몽고사 연구」등의 저서를 남기고 지난 1월 타계한 이용범 (前본교 교수) 박사의 유저다.

이 책은 고대 만주와 한민족의 교류사를 정립하고, 고구려, 신라, 몽고를 연제한 교류, 전래적 교류의 종교와 예술 경제교류의 무역을 고찰하였다.

<동화출판사刊·9천5백원>

꺼지지 않는 불길

김태엽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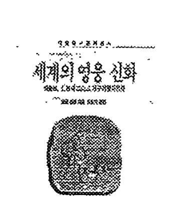
최초의 한국인 노동조합인 재동경조선인 노동동맹의 발기인이기도 했던 저자가 항일독립운동의 실천적 투쟁을 노동운동에서 모색했던 인생 80의 체험적 기록을 담고 있다.

암울한 일제와 혼돈의 해방정국을 겪으면서 노동운동가가 가져야했던 좌절, 사랑 끈질긴 투쟁이 전편에 리얼하게묘사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조직인 건국노동총연맹의 조직에 관한 기록은 노동운동사에 있어 사료적 발굴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루칸모로 刊 3,600원>

세계의 영웅 신화

이윤기 옮김



세계 각처의 신화, 전설, 민담, 종교에서 등장하는 영웅의 이야기를 비교함으로써 신화가 상징하는 의미로 드러나도록 했다. 각 신화의 영웅이야기는 영웅이 쓴 가면과 의상이 다르고 그가 겪는 시련과 무대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책은 융과 심리학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다양한 문화의 영웅신화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대원사 刊·4천5백원>